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석사학위논문

CPTED 기본원리 영역 재구성에 관한 연구

-살기좋은 마을 관점에서 본 CPTED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박 혜 진

CPTED 기본원리 영역 재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nstructing Basic Principles of CPTED

– Focused on the CP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better village –

2018년 2월 23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박 혜 진

CPTED 기본원리 영역 재구성에 관한 연구

-살기좋은 마을 관점에서 본 CPTED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진 렬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박 혜 진

박혜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황 영 성 ㉠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황 윤 용 ㉠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렬 ㉠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01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절	연구의 구성	5

02 이론적 연구

1절	CPTED 에 관한 고찰	8
	1. CPTED 개념	
	2. CPTED 기본원리	
	3. CPTED 한계점	
2절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고찰	24
	1.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과 의의	
	2.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 요소	

03 CPTED 기본원리 재구성

1절	CPTED 재구성을 위한 관점	39
	1. 환경중심적 접근	
	2. 인간중심적 접근	

2절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	42
	1.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	
	2.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전략	

04 사례 연구

1절	사례 연구 개요	51
2절	CPTED 재구성원리 적용분석	53
	1. CPTED 사례 연구	
	2. 성공 사례 분석	
	3. 사례 비교	

05 결론

1절	연구의 결과	88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90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ng Basic Principles of CPTED

-Focused on the CP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better village-

Park, hye-jin

Advisor : Prof. Lee, Jin-ryeol

School of Design & Creativ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iversified projects with an application of crime prevention design, i.e., CPTED to prevent design through environmental improvement are being actively studied and implemented. In particular, active attitudes are being observed such as maintenance of related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and incorporation of utilization systems, etc. also on the government level.

Since however, the present CPTED is concentrated in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it is often limited to the level of imitating fragmentary facilities or policies in some successful areas rather than to the development of diversified strategies for an application that considers areas and places only.

Thus, in the present study, the concept reconstruction of CPTED has been carried out from the CPTED with focus onl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to the viewpoint of human-oriented approach emphasizing soci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management. Accordingly, reconstruction of basic principles domain of CPTED were suggested to allow active coping of the

regional residents, consent among members and changes in consciousness.

Reconstruc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CPTED by sufficiently containing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village identity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sustaining a crimeless village has been considered, and considerations have been given to the available concepts and cases concerning a nice village to live in. To generate an nice village to live in, elements such as Identity and community, etc. which are considering mental and psychological parts such as a space for life of sluggishness, activity, and communication,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etc.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by classifying the cases of a nice village to live in from domestic to overseas cases, community, Identity, village brand, village resources and village's cultural ecology environment have been derived as components based on the identity. Since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could be enhanced by a realization of the identity based on the village's identity, the creation of incomes for the village by effective use of village resources and activation of commun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were included for the expans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CPTED.

The basic principles of CPTED were reconstructed into physical domain, psychological domain, and community domain. These three domains have a relationship of giving & taking significant effect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a given strategy is not applicable to only one domain but affecting the entire domains. Among them, the existence of the community based on village branding and village's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village identity particularly in psychological and community domains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By thus considering the concept of CPTED components for a nice village to live in, the basic principles of CPTED have been reconstructed. Five basic principles of CPTED were considered as the physical domain, and the elements of a nice village to live in were expanded to the psychological

domain and the community domain. These two newly introduced domains also include securing of the village's identity, preservation, and recreation the cultural history, village festivals, pride construction as well as village storytelling, village businesses, village resources, village communities, and creation of village revenues from linkage with the regional group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the effective use of CPTED.

Keywords; CPTED, crime prevention, crime prevention design, village production

표 목 차

[표 2-1] CPTED 개념정의	9
[표 2-2] CPTED 구분	11
[표 2-3] 학자별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재구성	13
[표 2-4] CPTED원리와 내용 재구성	16
[표 2-5] CPTED 선행연구 고찰	18
[표 2-6] CPTED 연구의 한계	19
[표 2-7]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 발견	20
[표 2-8] 마을 만들기 개념	24
[표 2-9] 여러 유형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개념	26
[표 2-10] 살기 좋은 마을 선행연구	30
[표 2-11] 살기 좋은 마을분석	31
[표 2-12] 살기 좋은 마을의 유형	32
[표 2-13] 국내 살기 좋은 마을 사례 분석	33
[표 2-14] 국외 살기 좋은 마을 사례 분석	34
[표 2-15] 살기 좋은 마을의 조건	35
[표 2-16] 살기 좋은 마을 요소	36
[표 3-1] 환경중심적 접근	40
[표 3-2] 인간중심적 접근	41
[표 3-3]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CPTED 3영역	43
[표 3-4] 3영역에 존재하는 4가지 구성요소	44
[표 3-5] CPTED기본원리와 CPTED기본원리 재구성	45
[표 3-6]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전략	48
[표 4-1] 사례 연구 개요	51
[표 4-2] 현장조사지역	53

[표 4-3] 광주 남구 월산동 달외마을	54
[표 4-4] 부산 구포 2동	55
[표 4-5] 부산 덕포 1동	56
[표 4-6] 부산 부곡동 가마실 행복마을	57
[표 4-7] 부산 학장동 붉은디 마을	58
[표 4-8] 서울 노량진 고시촌일대	59
[표 4-9] 서울 대림 2동	60
[표 4-10] 서울 삼양동소통길	61
[표 4-11] 서울 신대방동	62
[표 4-12] 서울 쌍문 1동	63
[표 4-13] 서울 염리동 소금길	64
[표 4-14] 서울 정릉동 정든마을	65
[표 4-15] 서울 회기동 안녕마을	66
[표 4-16] 서울 행운동 행운길	67
[표 4-17] 슬로우시티 마을	70
[표 4-18] Identity 디자인 마을	71
[표 4-19] 마을 유형별 사례 연구	73
[표 4-20] 부산 안창 호랭이 마을 사례 연구	74
[표 4-21] 부산 아미동 비석 마을 사례 연구	76
[표 4-22] 감천문화마을 잘사는 마을 가구기 내용 I	80
[표 4-23] 감천문화마을 잘사는 마을 가구기 내용 II	82
[표 4-24] 감천문화마을 잘사는 마을 가구기 내용 III	83
[표 4-25] 감천문화마을과 CPTED 적용 마을 회기동 안녕 마을의 비교	85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구성 흐름도	5
[그림 2-1] 살기 좋은 마을 개념	37
[그림 3-1] CPTED 3영역에 존재하는 4가지 구성요소	42
[그림 3-2] CPTED 기본원리재구성	47
[그림 3-3] CPTED 기본원리 전략	49
[그림 4-1] CPTED사례 기본원리 재구성에 적용	68
[그림 4-2]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69
[그림 4-3] 영국 웨일즈 릴	71
[그림 4-4] 부산 감천문화마을	72
[그림 4-5] 부산 안창 호랭이 마을	75
[그림 4-6]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77
[그림 4-7]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78
[그림 4-8] 감천문화마을 작품	79
[그림 4-9] 감천문화마을 브랜딩, Identity	81
[그림 4-10] 감천문화마을 관광 상품	81
[그림 4-11]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 공간	82
[그림 4-12]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84
[그림 4-13] 감천문화마을 기본원리 재구성 적용	84
[그림 4-14] CPTED 재구성에 따른 사례 비교 CPTED시행지역 VS 살기좋은 마을	86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구성

제 1 장 서 론

제 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국민행복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로써 국가 발전의 기초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할 때 사후적 해결 방법보다 사전적 조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전적 조치를 위한 정책에는 노력과 비용을 아끼기 마련이다.¹⁾ 그러나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급변함에 따라 치안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안 영역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치안수요는 59.7%가 증가하였다.²⁾ 그렇지만 치안예산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위권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 안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12년 전국 평균 13.8%에서 2014년 9.5%로 하락하였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식 외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2010)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연간 범죄로 인하여 사용되는 비용이 36조 5천억 원이 넘으나 범죄 예방단계에서는 1/3정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출하고 있다.³⁾ 한국형사정책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만 보더라도 살인, 약취유인, 성폭행 등 각종 범죄발생에 따른 사회

1) 장종태, 금강일보,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6.05.30., 대전 서구청장 (2017. 8. 22 검색)

2)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3) 조홍식·민원홍·김현민,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2), 2010, p.163

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2008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해당 연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6.2%에 해당하는 큰 손실이다.⁴⁾

또한 연간 158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4%미만에 불과해, 범죄발생에 따른 손실의 대부분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낭비 요소라고 여기기보다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강화시켜, 민간이 떠안고 있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⁵⁾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CPTED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사회 불신과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하 CPTED)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연구,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CPTED가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써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화 된 구심에서는 사인 조명이나 벽화 그리기와 같은 일부 성공한 지역의 단편적인 시설물이나 정책을 모방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CPTED 사업 초기에 일시적으로는 많은 관심 속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어울리지 못하고 부조화를 이루어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CPTED도 이미 개발된 물리적 전략들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정도로 사업이 실행되고 있어서 주민은 실질적으로 소외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초기의 범죄율 감소현상에 만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근본적인 범죄 문제 해결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www.kic.re.kr

5) 한국일보 2011.02.20. (2016. 8. 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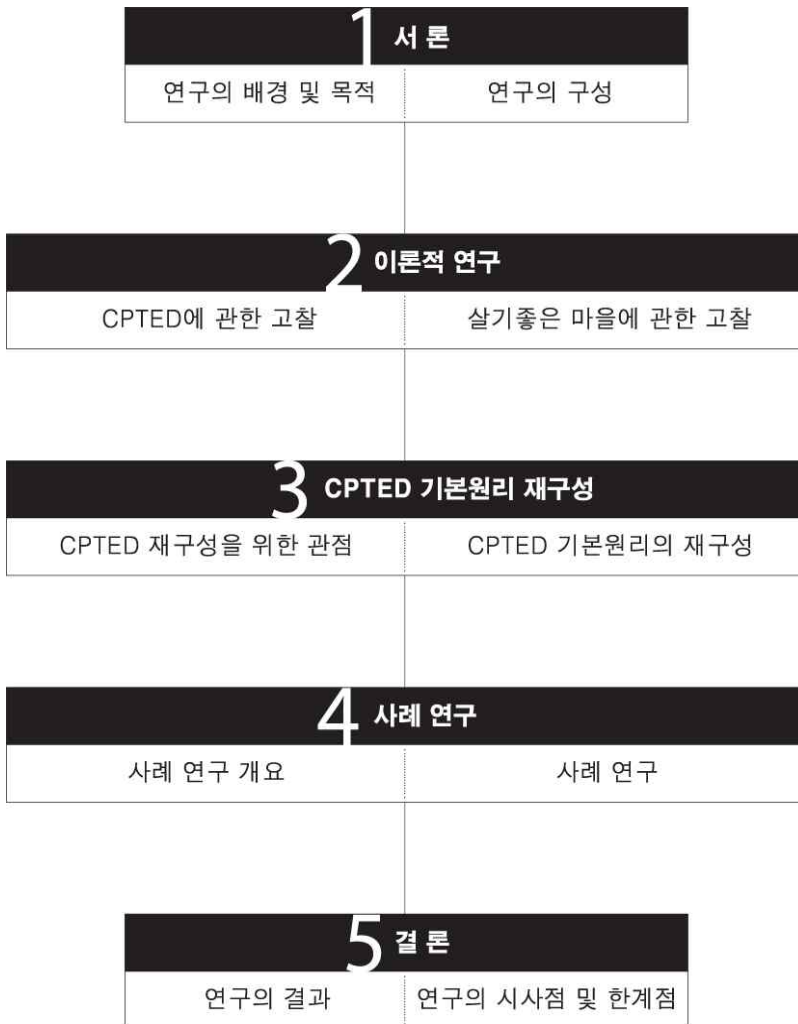
문화일보 2014.02.17. (2016. 8. 24 검색)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CPTED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본단계로 살기 좋은 마을 사례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성요소를 도출, 분석하여 CPTED 기본원리를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물리적 요소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공동체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들을 모색하여 범죄율을 낮추는 CPTED의 효과성을 일시적인 것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CPTED 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범죄에 영향을 주는 지역 환경 요소들을 분석 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요소들을 확대·정립한 후 이 결과를 CPTED 기본 원리 영역을 확정하여 이를 CPTED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자 함이다.

제 2절 /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흐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구성 흐름도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CPTED 개선을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1절에서는 CPTED에 대한 개념, 이론적 배경과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실증 연구의 배경 지식을 마련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실증연구 단계로 현장조사와 문헌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고찰하고, 살기좋은 마을 관점에서 CPTED 기본 원리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CPTED 기본원리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CPTED 원리 확대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두 번째, 위 단계를 토대로 살기 좋은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고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를 확정한다.

3장에서는 CPTED 기본원리를 재구성하는 단계로 CPTED개념 관점을 재구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CPTED기본원리를 재구성한 결과에 비추어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한다

제 2 장 이론적 연구

제 1절 CPTED 에 관한 고찰

1. CPTED 개념
2. CPTED 기본원리
3. CPTED 한계점

제 2절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고찰

1.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과 의의
2.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

제 2 장

이론적 연구

제 1절 / CPTED 에 관한 고찰

1. CPTED 개념

CPTED에 관한 관심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저술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이 책에서 도시 계획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시의 다양성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동 그 자체가 도시를 활동적이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설명하며 그 안에서의 영역성과 자연감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PTED에 대한 용어는 1971년 Florida State University의 범죄학 교수 레이 제프리(C.Ray Jeffery)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서적에서 시작되었다. 이 서적은 1964~1968년 사이에 미국의 도시에서 일어난 폭력과 인종 차별에 관해 작성된 “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저술된 서적으로 그 제목에서 CPTED가 유래되었다. 레이 제프리(C.Ray Jeffery)는 이 책에서 주어진 건축 환경을 개선하면 범죄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범죄발생률이 낮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하며, 자연감시와 접근통제 그리고 영역성의 문제를 다뤘다.

이어서 1972년에 출간된 뉴먼(Newman)의 “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에서 CPTED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가 도출됨으로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디자인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다. 뉴먼(Newman)은 저서에서 주거 공간의 적절한 건축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적 영역 밖 공간인 공용 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공간들을 방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

으로 CPTED를 발전하고 정립시켜 나갔다.⁶⁾

이에 먼저 CPTED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CPTED, 범죄예방, 범죄예방디자인 등의 키워드를 <http://www.dpiacokr>, <http://searchkoreanstudies.net>, <http://www.nkis.re.kr>의 논문검색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38개의 논문과 23개의 정책보고서가 검색되었다. 이 문헌들 중 연구의 의도와 맞지 않는 연구와 보고서를 제외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총 10건의 연구를 분석하였고, 그 내용을 시대적 순서로 고찰 하였다.

[표 2-1] CPTED 개념정의

구분	연구자	개념
국외	Jane Jacobs (1961)	환경에 대한 자연적 감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범행을 예방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범죄의 위험을 깨닫게 함
	C.Ray Jeffery (1972)	주어진 건축환경을 적절히 이용하면 범죄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고 범죄발생률이 낮아져 삶의 질이 높아짐
	Oscar Newman (1972)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아파트의 창문 밖 공간인 공용 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주민들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는 구역들을 방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
	Moffat (1983)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환경을 물리적 설계 및 관리를 통하여 개선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범죄자의 범주기회를 억제하여 범죄는 막는 범죄예방기법
	Timothy D.Crow, (NPCPI) ⁷⁾ (2000)	미국범죄예방연구소 보고서,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
국내	경찰청 (2005)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
	정재희 ⁸⁾ (2007)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환경설계기법
	박현,김영제 ⁹⁾ (2008)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을 더 어렵게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의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방범전략
	한국CPTED학회 (2010)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의 위험성 및 범죄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저감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함

6) Newman,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om, 1972, pp.8-9 재인용

7) Timothy D.Crow &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2000, 재인용

8) 정재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CPTED의 의의와 경남의 정책 방향, 경남정책Brief, 2007, p.1

오스카 뉴먼(Oscar Newman, 1972)는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아파트의 창문 밖 공간인 공용 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주민들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는 구역들을 방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모펫(Moffat, 1983)는 CPTED 를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환경을 물리적 설계 및 관리를 통하여 개선하고 변화시켜서 범죄자의 범행기회를 억제하여 범죄를 막는 범죄예방 기법 이라 정의하였다. 한국셉테드학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의 위험성 및 범죄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저감시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9) 박현·김영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범죄환경설계의 전략과 향후 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7, 2008, p.173

2. CPTED 기본 원리

크로우(Croew, 2000)에 따르면 CPTED는 기본적으로 2대 핵심원리의 3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CPTED는 환경을 이용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전략에서 환경 자체를 자연적,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자연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감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전략에서 환경 자체를 자연적,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자연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감시로 옮겨가는 추세를 제2세대 CPTED 라 명명하고 이것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¹⁰⁾

이와 다르게 제1세대 CPTED는 도시건축적인 물리적 환경, 제2세대 CPTED는 가이드 라인과 규제중심의 제도적 환경, 제3세대 CPTED는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이웃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¹¹⁾

[표 2-2] CPTED 구분

구분	영역	내용
제1세대	물리적 환경	도시 건축적인 부분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
제2세대	제도적 환경	가이드 라인과 규제 중심의 제도적 환경
제3세대	관계적 환경	이웃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계적 환경 조성의 관계적 환경

그러나 아직 이러한 영역들을 제시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CPTED 전략을 세울 때에 이러한 요소들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요소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공동체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들을 모색하여 CPTED의 효과를 지속 가능한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CPTED의 기본원리의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학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리하고

10)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의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사례연구, KiC현사정책연구소식, 2013, p.35
11) 박진화·황용섭·박성룡, 주거환경 취약지구에서의 제3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전략,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15(5), p.251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천 전략 체계를 기본틀로 이용하고자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범죄예방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원리로 한 종합적인 기초연구¹²⁾를 수행하여 환경설계에 필요한 실천전략을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이렇게 5가지로 보고 있다.

학자별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CPTED의 기본원리의 내용과 개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실천 전략 체계를 기본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12) 강은영·박미량·김상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재인용

[표 2-3] 학자별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재구성¹³⁾

구분	연구자	CPTED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국외	Oscar Newman (1972)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Territoriality), 환경(Milieu), 이미지(Image)
	C.Ray Jeffery (1977)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이미지와 입지환경(Image & Milieu)
	Moffat(1983)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증대(Activity Support), 유지 및 관리 (Maintenance and management), 이미지 (Image)
	Jeffery&Zahm (1993)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강화(Reinfor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Timothy D.Crow, (2000)	접근 통제(Access Control),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국내	김영제(2007)	접근 통제(Access Control),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임준태(2009)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
	박현호(2010)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이미지 및 관리(image & maintenance), 활동적 프로그램 지원 (activity program support)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의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활동의 활성화 (Activity Support), 유지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13) 신재현·김상운,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012, p.232, 연구자 재구성

첫 번째로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¹⁴⁾란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자, 환경(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주민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설계로서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 시켜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수상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범죄와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원리이다.¹⁵⁾ 자연적 감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시선, 조면, 공용공간의 위치, 접근로의 위치 등을 들 수 있다.¹⁶⁾ 자연적 감시는 일상생활이론¹⁷⁾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요건 중에서 감시자의 부재를 해결해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 효과를 가진다.

두 번째 접근 통제(Access Control)는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권한 없는 사람들의 진입 및 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와 일반인이 단들이 마주할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내부인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기법들을 포함한다. 공동 주택 단지 등에서 단지 내 출입구 수를 최소화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은 차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세 번째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에서 영역성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한다. 영역성 강화는 잠재적인 범죄인에게 영역감¹⁸⁾을 인식시켜, 실

14) 노동주·임창주,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법학논총, 22(2), 2002, p.28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는 범죄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감시인원을 늘리거나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 감시와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나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범죄를 관찰하도록 하는 자연적 감시로 나누어진다. 환경변화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5) 이도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1(4), 2013, p.45

16) 노동주·임창주, *op.cit.*, p.28

17) 일상생활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표적, 감시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건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주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범죄유발요인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는지 여부는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에 의존한다고 한다. 네이버 경찰학사전 인용 (2016. 9. 2 검색)

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경계를 만들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범죄를 억제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 울타리, 각종 표지판, 조경 등의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전이 공간에서 재질이나 색, 디자인을 변화시키는 등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을 적용 한다.이 원리는 해당공간에 대한 정당한 이용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는 연대감을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은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고 자극하여 거리의 눈 eyes on the street (Jane Jacobs)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의 범죄 행위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며, 공간과 시설에 대한 이용과 사용빈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게된다. 주민복지시설, 공원 및 휴게실, 상가 등을 계획하여 주민들간의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잘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환경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원리의 근거가 되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¹⁹⁾에 의하면, 관리되지 않은 공간과 시설에서는 주민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거나 또는 약화 되서 훼손과 파손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²⁰⁾ 이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용 빈도가 줄어서 그 일대에서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비와 적절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²¹⁾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강승영·안수미·손광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안, 디자인학회 논문집, 23(6), 2014, p.151

19) 윌슨과 켈링(Wilson & Keeling, 1982)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버려진 차량과 낡은 건물, 쓰레기와 같이 물리적 징후를 대표하는 용어로, 지역사회의 주관적, 객관적 무질서가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체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6. 9. 22 검색)

20) 이경화·신윤재·엄아영·박재은·이전미·최성호,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지하철 역사 공간의 범죄유발요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2014, p.411

2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경찰청, 2005

[표 2-4] CPTED원리와 내용 재구성

구분	원리	내용
기본원리	자연 감시	주변 환경의 시각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시성을 높여서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역안의 사회적 통제로 낯선 사람의 활동이 눈에 띄이기 쉽게 하여 범죄행위 가능성을 낮춤
	접근 통제	사람들의 일상적 보행환경인 도로, 보행로, 조경, 문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범죄자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에 접근을 어렵게 만듦
	영역성 강화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경계를 만들어 해당 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여 주민 중심의 영역성을 확보
보조원리	활동성 증대	계획된 공간의 구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이웃간 자연스러운 감시효과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감시 효과
	유지 관리	어떠한 시설물 기타, 공공장소가 계획되고, 설계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유지 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지저분해지거나 노후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와 관련

이 밖에 CPTED 원리에 추가로 명료성 강화²²⁾와 지역 사회 구축²³⁾을 드는 견해도 있다. 명료성 강화는 공간과 어떠한 시설을 쉽게 인식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며, 지역 사회 구축은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외부 공간의 효율적 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자연적 감시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CPTED 기본원리는 물리적, 소극적 측면이 강하여 인간 중심적 CPTED 기본원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마을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살기 좋은 마을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2) 아파편 단담마논·조정형, 골목마을을 위한 CPTED 범죄예방 유도표시 디자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16, 15(1), p.103

23)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방법론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14, 2013, p.378

3. CPTED 한계점

1991년에 티모시 크로우 (Timothy D.Crow)가 저술한 “범죄예방설계 ; 건축설계와 공간관리 개념의 적용”은 미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CPTED 지침서로서 미국범죄예방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CPTED 개념은 90년대 중반부터 학문적으로 소개되었고, 2005년 3월 경찰청에서 CPTED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었다. 또한 그 해 7월에는 판교 신도시에 CPTED 적용에 관한 지침서도 마련되었다.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법설계의무화법도 추진되었다. 현재는 서울시, 부산시 등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PTED는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 및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정의 한다. CPTED는 범죄가 주어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존의 범죄자 중심의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환경의 영향과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CPTED는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개선 범죄예방 개념에서 자연스러운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질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더불어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주민참여, 경찰활동의 요소를 첨가하여 양적으로도 확대, 발전시켜 안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CPTED 전략을 모색할 때 물리적 환경에 기초한 전략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CEPTD의 한계점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자의 연구를 분석하여 CEPTD 연구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된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CEPTD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CPTED의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38편의 논문 중에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논문 5편과 요

약 형식의 논문, 본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23편의 논문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표 2-5] CPTED 선행연구 고찰

구분	연구자	내용
범죄 관련 영향 요인 위험도 평가	강석진(2010)	범죄관련 영향요인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지수화시켜 GIS에서 범죄자료 없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
지역위험도 평가연구	김민우·강석진·이경훈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역 위험도 평가 연구
CPTED평가 지표 현황 연구	이유미(2011)	범죄에 대한 거주자의 불안감과 범죄예방 설계평가기준
	강규진·이경훈(2015)	범죄예방 관점에서 본 마을 만들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현황분석과 디자인 제안	강승영·안수미·손광호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제안
CPTED 적용사례 연구	아파편단탐마논조정형	골목마을을 위한 CPTED 범죄예방 유도표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형복·임윤택·최봉문· 김낙수(2012)	학교시설에서 CPTED적용방안 LC 원칙 따른 시뮬레이션
	박경래(2013)	국형사정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CPTED 설계 방법론	이호상(2013)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방법론연구
	박진희·황용섭·박성룡	주거환경 취약구역에서의 제3세대 범죄예방환경 설계전략
범죄 유발 요인과 적용 방안	박성철(201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위한 학교 공간 우선 순위 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요소 기대 효과와 적용 방안
	김대용·김태용·정승호· 박현호(2012)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의 CPTED체크리스트에 의한 환경디자인 연구
	이경화·신윤재·엄아영· 박재은·이전미·최성호 (201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한 지하철 역사 공간의 범죄 유발요인 연구

주요 연구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CPTED 내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CPTED개념의 적용으로 범죄 발생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CPTED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확장을 통한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여 주는 설계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을 볼 수 있다. 또한 CPTED 전략을 세우는데 기본이 되는 기본원리들이 범죄예방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여 마을 공동체의 가치나 정체성을 고려한 전략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CPTED는 지역상황을 잘 알고,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CPTED 기본원리들은 그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표 2-6] CPTED 연구의 한계

연구자	내용
전영실·이건종(1994)	국내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함
기광도·이기현·임영철(1995)	범죄예방을 위한 인력 및 자원, 범죄정보에 대한 분석 미흡
조병인(2001)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며 민간차원의 방법활동도 초보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름
경찰청(2003)	국내의 높은 CCTV설치율에 비해 부족한 관리 현황 및 부적절한 설치 지적
김태복(2009)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로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레저시설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 증가 하였으나 경찰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범죄를 적절히 예방하지 못함

CPTED 한계에 관한 의견으로는 CPTED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범죄예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인력 및 자원, 범죄정보에 대한 분석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참

여도 형식적인 수준 정도에 그치고 민간 차원의 방법 활동 또한 초보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로 소비활동 또한 증가하면서 백화점, 대형할인점, 레저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경찰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예방체계에 구멍이 생겼다. 또한 우리나라의 CCTV 설치율은 다른 나라와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관리의 소홀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CEPTD의 현장조사를 통해 15곳의 CPTED 적용지역을 현장답사한 결과 이 곳들은 CPTED 기본원리 3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표 2-7]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 발견

문제점	현장조사 사례
시설물 설치의 한계성	
벽화의 집중되는 한계	
주민 참여 부재로 유지관리 소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설물 설치의 한계성으로 CPTED 사업이 벽화와 비상벨, CCTV, 비상벨 설치 등 수동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CCTV, 비상벨 등의 시설물들이 과도하게 범죄예방을 드러내고 있었다.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표식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노골적인 범죄예방지역이라는 표식때문에 그 동네의 다른 고유한 특성들이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을 이미지를 떠올릴때 범죄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두 번째, 콘텐츠가 벽화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벽화마을 사업은 골목길과 노후된 지역이 대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되어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꾸준히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마을의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관련 없는 이미지의 범람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유사한 벽화마을이 난립하고 있었다. 벽화의 경우 마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미지의 남발이 가장 많았고 한 마을 벽화 내에서도 서로 조화롭지 못한 낮은 수준의 그림도 많았다. 이러한 벽화는 오히려 주민들의 개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CPTED 사업 실행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과도한 색상으로 채색된 벽면 등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부자에게도 긍정적 이미지보다 노후된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식처럼 부정적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많아 보였다. 주변 환경과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조화로운 이미지를 사용해 마을 전체의 미관을 보다 심미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주민들의 참여와 마을 Identity를 통한 마을 브랜딩이 우선되어야 조화로우면서도 살기 좋은 안심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역사를 소재로 한 이미지와 스토리 발굴에 주민들이 다같이 힘을 써야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고, 고유의 특색을 지닌 마을 가꾸기가 성공할 것이다.

마지막 문제점은 주민 참여의 미흡함이었다. CPTED 를 적용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주자의 만족도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없으면, 유지 보수의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취약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에 그치기 쉽다. CPTED는 지역상황을 잘 알고,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CPTED가 아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여러 유형의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 할때도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CPTED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들이 물리적 요소 외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CPTED

성공사례 마을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무분별한 시설 의존적인 전략들과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의 모방한 정책들은 한시적인 효과성은 분명하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다. 실제로 CPTED 를 시행한 지역들도 초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마을이 정돈되어 외부사람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관리의 미흡으로 시설의 노후화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안심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PTED는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주도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례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의 범죄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고 유사한 전략들이 모방되어 무비판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그 동안 국내 CPTED 사업들이 주로 정책적으로 단기적 시범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CPTED 전략을 세우는데 기본이 되는 기본원리들이 범죄예방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가치나 정체성을 고려한 전략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의 가치나 정체성을 고려한 전략들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CPTED 정책들의 목표달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본원리 영역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범죄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과 장소마다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 등 고유한 특성이 지니고 있어서 세밀한 지역공간별 연구가 선행되어야, 주변의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CPTED 전략들은 물리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 요소 등의 부차적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서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ED가 범죄대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이유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봐도 많은 경우에 범죄의 감소 및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CPTED 가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이유는 마을마다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적인 전략인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PTED를 각 지역마다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CPTED의 한계는 극복하고 효과성은 극대화하기 위해 CPTED 원리를 수정,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의 CPTED 원리는 신도심이나 개발지역에서는 그 적용이 용이하나 구도심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CPTED 기법은 발생부터 본래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범죄예방 정책이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 및 공간, 또는 시설 등 국지적인 상황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제가 있어 확장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CPTED에서 물리적 요인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CPTED가 적용된 마을 15곳을 현장조사 한 결과 CPTED 원리가 물리적 환경 조사의 원리로서만 작용하고 지역마다의 사정과 다양한 변수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도입 초기에 비하여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주민 공동체 의식과 마을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하여 범죄예방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절 /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고찰

1.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과 의의

살기 좋은 마을의 사례로부터 개념과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DBpia에서 마을사업과 연관되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 브랜드, 커뮤니티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최근 약 10년간의 연구 논문 중 논문 25편 중 마을 사업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을 정리하여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8] 마을 만들기 개념²⁴⁾

연구자	개념
김찬호 ²⁵⁾ (2000)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 해나가는 과정
임경수 ²⁶⁾ (2008)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
최승호 ²⁷⁾ (2009)	지역 소규모 생활 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 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
정재희(2012)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사람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함
김우영 ²⁸⁾ (2013)	지역과 마을을 중심으로 경제와 일자리, 사회경제적 커뮤니티,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마을 생태계를 복원해 가는 과정
신 중 진·정 지 혜 ²⁹⁾ (2013)	공동체다운 인간관계와 소속감 있는 지역사회의 삶을 전개하는 주체적 사람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지역마다 정체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가꾸는 일
홍술기·조인숙·신화경(2015)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를 구축하고 연대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장

24) 홍술기·조인숙·신화경,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p.200

25) 김찬호,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학보, 13(11), 2000

26) 임경수, 마을 만들기 운동과 사회적 기업, 복지 동향, 2008, p.10

27) 최승호,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논총, 19(1), 2009, p.237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살기 좋은 도시나 마을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삶의 질이 높고 낮은 범죄율을 지닌 마을을 포함하는 점에서 CPTED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마을의 유형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슬로우 시티, 마을 브랜딩, 생태마을, 안심마을 등 여러 유형의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다. 이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Identity, 커뮤니티 등의 요소들이 기반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사업들이 추구하는 기치는 느낌의 삶, 활동, 소통의 공간, 사회· 문화적 요소 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CPTED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살기좋은 마을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유형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개념과 유형에서 이러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8) 김우영,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사업, 공공사회연구, 3(2), 2013, p.6

29) 신중진·정지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4), 2013, p.60

[표 2-9] 여러 유형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개념

명칭	개념
슬로우시티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생태를 보호 하며 느림의 삶 추구
Identity 디자인	마을 브랜드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마을	저탄소 녹색 마을
문화마을 사업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거, 문화, 관광, 상업, 전시, 공연 등이 어우러진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의 문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
공공 미술 프로젝트	지역을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공동체와 함께 문화소비,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 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 ³⁰⁾
행복 마을 사업	낙후 지역의 마을 단위 통합 도시 재생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이 대상
도시 재생 사업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 생활의 일정한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과정에 활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³¹⁾
키워드	느림의 삶, 활동, 소통의 공간, 공동체 활성화, 사회 문화적

지역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통한 문화 마케팅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차별화되고 지역화 된 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 창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³²⁾

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 중심적 마케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역 브랜드 자산의 구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의 문화마케팅에

30) 박문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대전 대동마을과 프랑스 리옹 벽화 마을 사례, 2013, pp.45-46

31) 이은자·최현선,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서울시 서대문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015, p.77

32) 최지영·김현지,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문화마케팅이 지역브랜드 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2(1), 2017, p.168

관한 연구 또한 미비하다. 그래서 초기에는 마을 주민공동체 의식 고취와 환경 개선에 다른 범죄예방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CPTED는 필수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지점에서 여러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CPTED사업을 융합해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2009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지속현황³³⁾을 살펴보면 연도별 지속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각 마을의 상황에 맞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역량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각 마을의 상황에 맞추어 알맞은 프로그램들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특징에 따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마을 만들기에서는 문화 관련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비슷한 활동 패턴을 지니고 있어 각 지역에 맞는 활동 유형을 탐색해서 마을 공동체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³⁴⁾

마을마다 경제 활동 및 의사 결정의, 교육, 문화의 공동체적 특성과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을마다의 공동체적 특성에 따라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료 공동체, 교육 공동체 등 어느 하나의 특징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³⁵⁾ 또한 마을 특성에 따라 문화역사자원 기반형, 상품자원 기반형, 지역인물 중심형, 마케팅·디자인 융합형으로 구분 하는 견해도 있다.³⁶⁾ 문화역사자원 기반형은 세시 풍속 등의 민속놀이, 전통자원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자원 기반형은 지리적 요소, 자연적 산물, 지역산물, 특산물, 먹거리, 가공산물

33) 신중진·김일영·배기택, 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7~2009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8(6), 2013, p.44

34) 홍슬기·조인숙·신화경, *op.cit.*, p.200

35) 최승호, *op.cit.*, p.237

36) 김현정, 마을 브랜드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p.275

등의 상품 자원을 기반으로 다가간다. 또한 지역인물 중심형은 지역의 유명인을 브랜드화하여 파생상품을 만들고 마을 마케팅을 해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디자인 융합형은 상품이나 지역을 디자인과 마케팅적으로 풀어내어 소비자 맞춤형으로 다가간다.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내 다양한 안전 위해 요인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의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CPTED의 목적이 되는 안심 마을은 궁극적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CPTED가 범죄자가 기회가 닿으면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환경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범죄자에 맞서 방어하는 부분에 집중해 왔다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범죄자가 생기지 않는 마을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CPTED 원리 중 특히 공동체와 커뮤니티와 밀접한 유지관리와 활동 지원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2.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

가) 선행연구고찰

살기 좋은 도시·마을의 특징을 토대로 공동체, 커뮤니티, CPTED, 정체성, 마을 소득 창출 프로그램, 마을 자원의 정의롭고 효과적인 이용 이렇게 4가지를 착안점으로 현장 조사한 CPTED 지역 15 곳을 분석하여 다른 유형의 마을 가꾸기 정책을 실시한 지역 중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마을 10여 곳을 비교 분석 하였다.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과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DBpia에서 살기 좋은 마을과 연관 지어지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여 최근 약 10년간의 연구 논문 중 논문 25편 중 마을 사업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1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부문에서는 2009년 최승호의 풀무마을에 관한 내용을 시작되었다. 그 후로 2015년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지, 최현선의 연구로 이어져왔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마을 부문은 2013년도 두 개의 연구(벽화마을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대전 대동마을과 프랑스 리옹 벽화 마을 사례)가 2014년 음영철의 한국의 '벽화마을'과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시안, 2016년 CPTED 기반 벽화 마을의 효용성에 관한 인과지도 구축연구로 이어졌다.

마을브랜드 부문에서는 2007년도 김은아의 복지와 도시브랜딩-행복마을(전라남도) 분석을 중심으로, 2015년 김현정의 마을 브랜드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2017년 최지영, 김현지의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문화마케팅이 지역브랜드 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되었다. 그 밖에 2009년 정윤남, 이건원, 김세용의 도시재생 부문의 연구와, 2014년 류인평, 조영호, 심우석의 관광스토리텔링 부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2-10] 살기 좋은 마을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내용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최승호(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충남 홍성군 흥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정재희(2012)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김우영(2013)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사업, 공공사회연구
	신중진·김일영·배기택(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7~2009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신중진·정지혜(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이은지·최현선(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홍슬기·조인숙·신화경, (2015)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마을	성영아·변민주(2013)	벽화마을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박문규(2013)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대전 대동마을과 프랑스 리옹 벽화 마을 사례
	음영철(2014)	한국의 '벽화마을'과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시안
	김부치(2016)	CPTED기반 벽화 마을의 효용성에 관한 인과지도 구축 연구
마을 브랜드	김은아(2007)	복지와 도시브랜딩-행복마을(전라남도)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정(2015)	마을 브랜드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최지영·김현지(2017)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문화마케팅이 지역브랜드 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 재생	정윤남·이건원·김세용(2009)	도시재생에 적용된 범죄예방방법에 관한 연구-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 스토리텔링	류인평·조영호·심우석 (2014)	관광스토리텔링과 관광목적지 매력, 브랜드 가치 연구-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키워드 도출	공동체, 마을사업, 지역기업, 주민 커뮤니티 관광지, 마을 특산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역사 자원, 자연 생태환경, 문화 자원 스토리텔링, 정체성, Identity, 마을 브랜드	

나) 살기 좋은 마을 사례 분석

이 분석은 마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Identity의 구현한 점,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마을의 소득을 창출한 점,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점, 최근 이루어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집수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마을 협동조합 운영,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희망길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표 2-11] 살기 좋은 마을분석

마을	유형
광주 양림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통영 동피랑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전 대화동	스토리텔링
부산 안창 호랭이 마을	마을 브랜딩
영국 웨일즈 릴	슬로우시티
신안 증도	슬로우시티
전주 한옥마을	슬로우시티
담양 창평면	슬로우시티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슬로우시티
이탈리아오르비에토	슬로우시티
시사점	-마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Identity의 구현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마을의 소득을 창출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임 -최근 이루어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집수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마을 협동조합 운영,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희망길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아래의 표는 살기 좋은 마을의 유형과 내용의 실질적인 예들로, 슬로우 시티 부문에서는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대한민국의 신안 증도, 전주 한옥마을, 담양 창평면 등이 있다. Identity 디자인 부문에서는 영국의 웨일즈 릴이 있고, 스토리텔링 부문에서는 대전 대화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 소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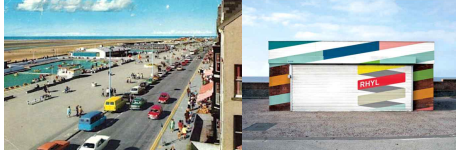



[표 2-12] 살기 좋은 마을의 유형

유형	마을명	내용
슬로우 시티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슬로우시티의 발상지 -대형 슈퍼마켓 유입 금지,외부인 부동산 소유제한 -전통방식의 농축산물 재배,사육 정책 -일정구역에서의 주차나 차량진입금지 -고용율 100%,소득수준이 높고 범죄율이 전국에서 낮음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슬로우시티의 중심지 -900년 역사 구시가지 자동차 통행 전면 금지, 케이블카로 진입 -슬로우푸드 발상지(패스트푸드점 개설 금지)
	우리나라	신안 증도, 전주 한옥마을, 담양 창평면 등
Identity 디자인	영국 웨일즈 릴	-영국의 디자인 팀 Proud Creative이 통일된 Identity를 부여하여 마을 전체를 브랜드화 -새로운 마을의 Identity 디자인은 새로운 건물, 구조물 등을 만드는 것 대신, 모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것들 위에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제안
스토리 텔링	대전 대화동	-마을 브랜드,이벤트 개발로 등대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을 감성적으로 설명해 낭만이 가득하고 안전과 희망이 있는 대화동을 스토리텔링화 -대화동의 안전과 회귀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등대를 콘셉트로 활용해 심볼과 로고, 엠블렘, 스토리 제작 -옷과 머그컵, 휴대전화 바탕화면, 컵홀더 등 대화동 내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전략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디자인 적용할 예정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의미의 엽서,우편함 설치 -마을 소득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대 베이커리 운영 제안 -등대과자와 등대달고나 등 상품개발로 지역의 명물 창출 도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통영 동피랑 마을	동피랑은 이순신 장군이 설치한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로 원래 마을을 철거하고 포루를 복원하고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벽화로 명소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보존하게 됨

[표 2-13] 국내 살기 좋은 마을 사례 분석

구분	마을	유형	이미지	Keyword
국내	광주 양림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통영 동피랑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대전 대화동	스토리텔링		마을 스토리텔링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부산 안창호랭이 마을	마을 브랜딩		Identity 바탕으로 한 마을 브랜딩
	담양 창평면	슬로우 시티		마을 자원을 이용한 돌담길
	신안 증도	슬로우 시티		마을자원 이용
	전주 한옥 마을	슬로우 시티		마을자원과 문화 이용

[표 2-14] 국외 살기 좋은 마을 사례 분석

구분	마을	유형	이미지	Keyword
국외	영국 웨일즈 릴 ³⁷⁾	슬로우 시티		마을 Identity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³⁸⁾	슬로우 시티		마을자원 이용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³⁹⁾	슬로우 시티		마을자원 이용
	브라질 리우 파벨라 ⁴⁰⁾	공공미술		공공미술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Identity의 구현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마을의 소득을 창출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임 -최근 이루어지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집수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마을 협동조합 운영,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희망길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비교 분석 결과 여러 유형의 마을 가꾸기 정책을 실시한 지역 중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마을 11곳은 마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Identity의 구현에 성공하여 마을의 브랜드와 정체성이 확실하였다. 또한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마을

37)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http://www.comune.greve-in-chianti.fi.it>

38) 영국 웨일즈 릴 <http://slowwalk.tistory.com>

39)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http://www.jjan.kr>

40) 브라질 파벨라 <http://www.favelapainting.com>

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와 상호 작용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집수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 마을 협동조합 운영,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희망길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한 살기 좋은 마을의 특징은 자연환경이 최적하고 경제수준이 높고, 도시고유의 매력과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낮은 범죄율, 정치적 안정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주거환경, 행정서비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분포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2006, 김선희 외)에 따르면 살기 좋은 도시·마을의 조건을 다음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2-15] 살기 좋은 마을의 조건

살기 좋은 도시·마을의 특징 (김선희 외,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			착안점
주거 안전	어울려 사는 마을	마을 안 시설물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 낮은 범죄율과 정치적 안정 사회적 안정성이 높음 적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	공동체 커뮤니티
문화	문화적 마을	마을 고유의 매력과 특성 유지 다양한 문화 행사	정체성 Identity구현
경제	일하기 좋은 마을	경제적 자립 경제수준이 높음	관광적 요소 고려 마을 자원을 이용하여 마을 소득 창출 프로그램
환경	생태적 마을	자연환경이 쾌적 자원의 합리적 사용으로 환경오염 낮춤	마을 생태환경 보존

다)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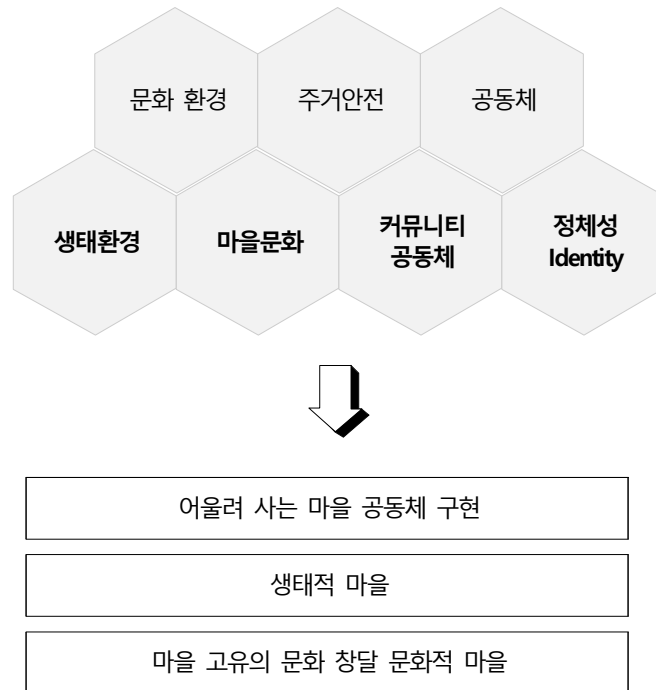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살기 좋은 마을은 자연 환경이 최적하고 경제 수준이 높으며, 도시 고유의 매력과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안전은 기본이며, 적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 하고, 낮은 범죄율, 정치적 안정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주거환경, 행정서비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분포한다.

즉 다시 말해 살기 좋은 마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울려 사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태 환경을 고려한 생태적 마을이 되어야 하며, 마을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는 문화적 마을이 되어야한다.

[표 2-16] 살기 좋은 마을 요소

살기 좋은 마을 요소	
공동체 커뮤니티 정체성 Identity 마을 자원 문화 생태	마을 커뮤니티 조직 마을 브랜드 마을 자원의 이용
▷물리적 영역 외에도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으로 확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의 비중을 높임 ▷인간 중심적 관점이 바탕이 되어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강조함	
종합	마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Identity의 구현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마을의 소득을 창출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임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공미술프로젝트, 벽화 마을,도시 재생, 관광스토리텔링, 슬로우 시티 등의 키워드를 도출

물리적 영역 외에도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으로 확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 관점이 바탕이 되어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 살기 좋은 마을 개념

따라서 종합해보자면, 마을 정체성을 바탕으로 Identity를 구현하고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마을의 소득을 창출해야한다. 또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마을, 도시 재생, 관광스토리텔링, 슬로우 시티 등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 3 장

CPTED 기본원리 재구성

제 1절 CPTED 재구성을 위한 관점

1. 환경중심적 접근
2. 인간중심적 접근

제 2절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

1.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
2.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전략

제 3 장

CPTED 기본원리 재구성

제 1절 / CPTED 재구성을 위한 관점

CPTED 접근 방법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른 전략들을 만들고 구현할 수 있다. 환경 중심적 관점과 인간중심적 관점은 전혀 다른 입장이면서도 보충적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 먼저 환경 중심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수동적 소극적 존재로 규정하고 외부의 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CPTED 에서는 물리적 영역의 비중이 큰 CPTED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에 반해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 구조 속에서 민주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두 가지의 입장은 어느 한쪽만을 취하기보다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보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간 중심적 관점이 인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환경 중심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문제해결 방법들에 비해서 자발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1. 환경중심적 접근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의 활동과 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려는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도록 만드는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등이 해당된다.

[표 3-1] 환경중심적 접근

환경중심적 접근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의 활동과 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려는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특정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범죄실행을 어렵도록 만드는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등이 해당	물리적 영역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활동성증대 유지관리	⇒수동적 ⇒소극적 ⇒총체적

2. 인간중심적 접근

인간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여기고 미래 지향적 존재로서 사회적 참여와 민주적 관리를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다. 범죄예방은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임을 알리고 구성원간의 합의와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마을 공동체 확립에 주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은 큰 의미가 있다. 과거 CPTED는 환경 중심적 관점에 치우쳐서 발달해 왔기 때문에 물리적 영역에서의 전략들이 비중 있게 발전해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그 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개인과 공동체와의 조화와 참여적 방법들을 사용해서, CPTED 전략이 안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3-2] 인간중심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			
-인간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접근방법으로 미래지향적인 존재로서 사회적 참여와 민주적 관리 중시 -범죄예방은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임을 알리고 구성원간의 합의와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물리적 영역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명료성강화 활동성증대 유지관리	⇒능동적 ⇒적극적 ⇒참여적 ⇒민주적
	심리적 영역	영역성강화 활동성 증대 마을Identity	
	커뮤니티 영역	활동성 증대 유지관리	

이에 따라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 원리에 따라 CPTED 기본 원리 영역을 구성해 보면, 마을자원, 마을문화, 정체성은 심리적 영역에 속한다. 이 중 정체성은 공동체 커뮤니티와 만나 커뮤니티 영역을 형성한다. 마을자원, 마을문화는 생태환경, 공동체 커뮤니티와 함께 물리적 영역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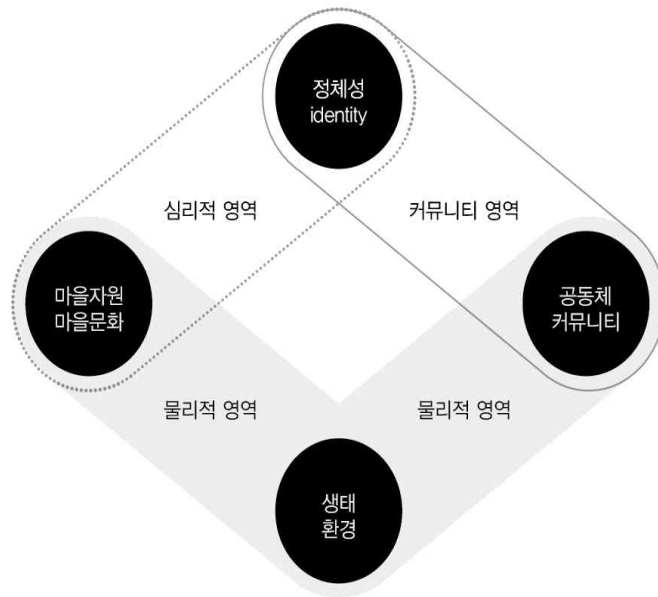
이런 환경적인 요소는 인간의 활동과 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주어 범죄를 저지려는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 특정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도록 만드는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 등이 해당된다.

제 2절 /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

1. CPTED 기본원리의 재구성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정체성과 공동체, 커뮤니티, 마을 자원·문화 그리고 생태 환경은 그 경계를 규정 할 수 없을 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어우러져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구성 요소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발견한 키워드를 토대로 다음의 4가지 구성요소와 3가지 영역을 제시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4가지 구성요소는 각각의 3가지 영역에 모두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더 관련 있는 부분과 연결하였다. 다음 CPTED 3영역에 존재하는 4가지 구성요소는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낸 구성요소와 합하여 세분화하기로 한다.



[그림 3-1] CPTED 3영역에 존재하는 4가지 구성요소

[표 3-3]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CPTED 3영역

용어	개념
물리적 영역	주어진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유형적인 부분으로 외부에 존재 기존 CPTED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역임
심리적 영역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주민이 마을에 느끼는 자긍심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부분
커뮤니티 영역	마을 커뮤니티 외부와 주민의 내부에 모두 존재하는 부분으로 심리적 영역과 차이점은 심리적 영역은 개인이 느끼는 요소를 포함한다면 커뮤니티 영역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느끼는 공동체적 의식과 관련한 것으로 주민 다수가 관계되어야 하는 부분

CPTED의 3영역 즉, 물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은 기존의 CPTED 기본원리가 소외시켰던 정서적인 부분, 참여의식, 공동체 의식 등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하여 본인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개념이다. 이 세 영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완전히 떼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물리적 영역에 비해 심리적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어느 한 전략이 한 가지 영역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리적 영역은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을 기반으로 그 안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실행 되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을, 커뮤니티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공동체 의식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심리적 영역은 인간의 내부의 개인적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표 3-4] 3영역에 존재하는 4가지 구성요소

구분	물리적영역	심리적영역	커뮤니티영역
마을정체성 Identity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 캐릭터	마을에 대한 자긍심	마을 브랜드화 마을자원 이용한 수익창출 스토리텔링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 신뢰도 저탄소 녹색마을	마을 커뮤니티 운동 슬로시티 운동
마을자원과 문화	장소 마케팅적 기법	마을의 전통성 마을 고유한 특성과 문화 보존	관광 스토리텔링 ⁴¹⁾ 관광 브랜드 가치 마을사업
생태환경	마을 조형물	공해 없는 자연환경	마을 특산품

물리적 영역을 살펴보자면, 마을 정체성 요소와 생태 환경 요소를 바탕으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물리적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다.

심리적 영역은 마을 정체성을 찾고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그 결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을 문화가 형성되며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니게 된다. 마을자원과 문화요소를 결합해서 마을의 전통성과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해 없는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마을 특산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커뮤니티 영역은 다른 영역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마을 특산품을 이용하여 마을 브랜드화, 마을 자원을 이용한 수익창출, 마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이 것은 마을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

41) 류인평·조영호·심우석, 2014, 관광스토리텔링과 관광목적지 매력, 브랜드 가치 연구-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2) pp.187-209

[표 3-5] CPTED기본원리와 CPTED기본원리 재구성

영역	CPTED 기본원리 재구성
물리적 영역	침입자 허가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 등에서 볼 수 있는 과거 배타적 관점의 원리에서 상호적 관점에서의 전환·확대 -감시 강화⇒ 자연적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 강화⇒ 심리적 영역 강화
심리적 영역	마을 정체성 Identity 마을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역성 강화 마을 축제 등 마을 문화 마케팅에 사용
커뮤니티영역	-자연스러운 이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이 필요 -지역주민의 참여가 요구됨 -유지 관리⇒발전적 관리
종합	-그동안의 CPTED가 감시강화 와 접근 통제 , 영역강화 등 외부자를 판별하고 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이 세워지고 시행되어 물리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내부집중 설치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감시와 통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시설물들이 많았음 침입자, 허가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을 배제하는 수동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제시됨 -마을의 역사와 Identity 측면에 입각한 branding 전략 -외부확대 외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연성을 넓히고 활동성의 확대와 발전적 관리를 통해 마을의 Identity를 관광적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발전을 도모함 침입자, 허가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에서 방문객, 관광객등의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전략 구사

기존의 CPTED 기본원리는 본인의 재구성 이론에 비추어보면 물리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심리적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을 추가하여 새로운 CPTED 원리를 재구성 하였다.

마을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심리적 영역성을 확장하였다. 심리적 영역에 기반하여 마을 축제등 문화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해 마을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영역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으로써 자연스러운 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유지관리를 통해 발전시켜야한다.

그 동안의 CPTED가 감시강화와 접근통제, 영역강화 등 외부자를 판별하고 행동에 제한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이 세워지고 시행되어 물리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내부집중적인 성격을 띤다. 설치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감시와 통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시설물들이 많았다. 침입자, 허가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을 배제하는 수동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제시된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반해, 새로운 영역의 추가로 재구성된 CPTED의 기본원리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CPTED의 기본원리를 확장시켰다. 외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연성을 넓히고 활동성의 확대와 발전적 관리를 통해 마을의 Identity를 관광적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또 침입자, 허가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에서 방문객, 관광객 등을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전략에 용이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CPTED의 기본원리의 특징과 살기좋은 마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새로운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해보았다. CPTED의 기본원리를 물리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살기 좋은 마을의 요소들을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그로인해 마을의 정체성확보, 문화역사 보존과 재생, 마을 축제, 자긍심 구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 마을 공동체,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CPTED 기본원리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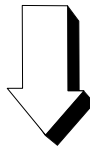
[그림 3-2] CPTED 기본원리재구성

2.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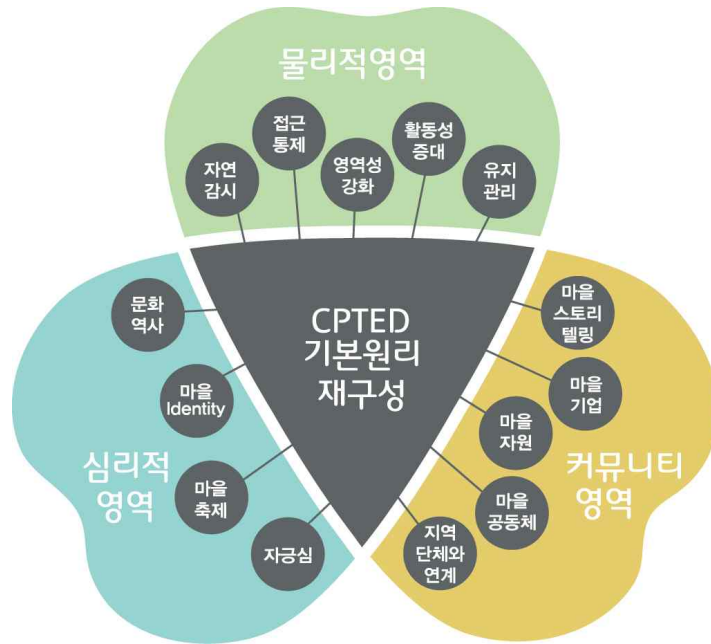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세 가지 영역에서의 전략들을 논의한다. 특히 물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CPTED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에 특히 강조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표 3-6]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전략

구분	CPTED 기본원리 재구성	재구성에 따른 전략
물리적 영역	과거 배타적 관점의 원리에서 상호적 관점으로의 전환 확대 -감시 강화⇒ 자연적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 강화⇒ 심리적 영역 강화	*특히 물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CPTED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을 특히 강조
심리적 영역	-마을 정체성 Identity -마을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역성 강화 마을 축제 등	-브랜딩 전략 마을의 역사와 Identity 측면에 입각 -마을의 Identity를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을 도모함
커뮤니티 영역	-자연스러운 이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이 필요 -지역주민의 참여가 요구됨 -유지 관리⇒발전적 관리	-외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연성 확대 -활동성의 확대와 발전적 관리 -침입자, 허가 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에서 방문객, 관광객 등의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전략 구사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
마을 문화역사의 보존과 재생 마을 Identity 마을 축제 마을에 대한 자긍심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의 활용 마을 공동체 지역단체와 연계



[그림 3-3] CPTED 기본원리 전략

CPTED 기본원리는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CPTED 기본원리로 재구성되었다. 물리적 영역에는 자연적 감시, 범죄자의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시설의 유지 관리가 있으며 이 원리는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심리적 영역으로는 마을의 문화와 역사, 마을 Identity, 마을 축제, 마을 주민의 자긍심 향상이 포함된다. 커뮤니티 영역은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 마을 공동체, 지역 단체와 연계를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침입자, 허가받지 않은 사람, 정당하지 않은 이용자에서 방문객, 관광객 등을 이용자로 전환시키므로써 마을 커뮤니티를 공고하게 만든다.

제 4 장

사례연구

제 1절 사례연구 개요

제 2절 CPTED 재구성 원리 적용 분석

1. CPTED 사례연구
2. 성공사례 분석
3. 사례 비교

제 4 장 사례연구

제 1절 / 사례연구 개요

살기 좋은 마을의 개념과 사례를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전략들을 모색하여 CPTED 사례를 살펴보고, CPTD 기본원리 재구성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사례 연구는 살기 좋은 도시·마을의 특징을 토대로 공동체, 커뮤니티, CPTED, 정체성, 마을 소득 창출 프로그램, 마을 자원의 정의롭고 효과적인 이용 이렇게 4가지를 착안점으로 현장 조사한 CPTED 지역 15 곳을 분석하여 다른 유형의 마을 가꾸기 정책을 실시한 지역 중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마을 10 곳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2017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터넷 조사,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살기 좋은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표 4-1] 사례연구 개요

사례 연구 개요	
접근 방법	현장 조사,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목적	CPTED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보기 위한 현장조사 마을 가꾸기 사례를 다룬 문헌 인터넷 검색으로 살기 좋은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수집
자료 정리	마을 유형별에 따른 사례 정리
조사 일시	현장조사 : 서울지역 2017년 5월 3일~5일/부산지역 5월 7일 문헌조사와 인터넷 조사 : 2017년 9월
조사 지역	광주 1지역, 부산 5지역, 서울 9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CPTED의 기본원리의 내용을 이해한 후 사례들을 대입해봄으로써 확대된 관점에서의 CPTED 기본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지표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기본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기존 CPTED 기본원리의 한계와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CPTED 기본원리를 재구성하여 기존의 CPTED 기본원리에 확대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CPTED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은 살기 좋은 마을을 통해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를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확장된 CPTED 기본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 초기의 기획의도와 다르게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에게 유지 보수의 부담이 주어진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마을의 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정부 기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통합한 발전 계획과 수행이 필요하다.

제 2절 / CPTED 재구성 원리 적용 분석

1. CPTED 사례 연구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범죄 안심 마을 사례들을 살펴 보고 이어서 나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성공 사례들과 비교 분석해서 이 연구가 의미 있음을 밝힌다. 총 15곳의 CPTED사업 시행 지역을 현상 답사 하였으며 이중 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 아미동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나머지 14 곳을 알아본다.

[표 4-2] 현장조사지역

현장조사지역	지역 정보
광주 월산동	월산동 달외마을 또는 달팽이 마을
부산 구포 2동	구포 2동 구포역 주변지역
부산 덕포 1동	덕포 1동 희망디딤돌마을
부산 부곡동	부곡동 가마실 행복마을
부산 아미동	아미동 비석마을
부산 학장동	학장동 붉은디 마을 치안올레길
서울 노량진	노량진 1동 205번지 고시촌 일대
서울 대림 2동	대림 2동 소통길 서울 속 작은 중국
서울 삼양동	삼양동 791번지 공폐가 상존지역
서울 신대방동	신대방1동 다누리안심마을 중국 교포 다수 거주
서울 쌍문 1동	쌍문 1동 우이천로 32길과 우이천로 34 나길 쌍문초등학교 근처
서울 염리동	염리동 소금길 대흥로와 승문길에 걸쳐있음 현재 주민이주 진행중
서울 정릉 3동	정릉 3동 372번지 정든마을
서울 회기동	회기동 안녕마을 주택가 및 원룸촌 일대
서울 행운동	행운동 행운길
시사점	-CPTED전략을 모색할때 물리적 전략 외에 다른 요소들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무문별한 시설의존적인 정책과 성공사례의 모방에 의해 시행된 정책은 한시적인 효과성은 있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감시인원을 늘리거나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감시와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CPTED 전략에 국한되어 있음

가) 광주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월산동 골목길 주택가는 저층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0%에 이르러 옛 1970-80년대 생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을로, 공·폐가율이 51%에 달한다. 주민협의회는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마을 자원 찾기에도 나서고 있으며, 마을지 덕림산 달마당도 발간하였다. 현재는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골목문화 연구 뿐 아니라 골목의 역사 자원을 전시하는 골목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광주형 공동체 주택 건설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달피 달팽이 행복 마을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등 ‘행복주택’을 준비하고 있다.

[표 4-3] 광주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광주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이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도부터 마을 가꾸기 사업 실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한 마을에 방향성 없이 다양한 주제의 벽화들이 그려짐으로써 정체성 모호 -노후화된 건물에 페인트를 덧담으로써 벗겨짐 현상이 심했음 -마을지도는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함 -마을지도를 통해 마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힘
전략	<p>물리적 영역</p> <p>주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소방도로 개설, 골목길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빈집활용 방안, 커뮤니티공간 확보</p>
	<p>심리적·커뮤니티 영역</p> <p>달팽이 마을 Identity 강화 주민 자율적 마을 활성화 광주형 공동체 주택 건설 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학교운영 주민한마음 축제</p>

나) 부산 구포 2동

구포역 주변지역은 KTX정차 감소,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상권 위축으로 쇠락해졌다.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취약과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세대단절, 소통단절로 말미암아 사회·물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중이다. 구포역 주변이 쇠락해지면서 우범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65명의 주민이 협의체를 만들어 골목길 순찰, 심폐소생술 등 안전공동체 활동을 늘리고 있다.

[표 4-4] 부산 구포 2동

부산 구포 2동 안심길	
이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치게 사실적인 벽화는 야간 보행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음 -안심 형광빛 연두색 -같은 지역의 비상벨과 표지판들이 제각기 설치되어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조화롭지 못함 -이 지역의 범죄 취약성을 과도하게 드러내어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음
전략	<p>물리적 영역</p> <p>통제구역의 표지판과 도로면에 그려진 안심벨 도로 정비를 통해 좁은 도로를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 적절한 글씨체의 개발과 벽면 도로면을 통일된 색상, 일관된 도로표지판을 사용</p>
	<p>심리적·커뮤니티 영역</p> <p>사람과 시간을 잇는 구포 이음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골목길 순찰 등의 안전 공동체 활동 지속</p>

다) 부산 덕포 1동

부산 덕포동은 2010년 김길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곳은 어둡고 구부러진 골목길이 많아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먼저 우범 지역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안전한 골목길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뜻한 벽화가 그려지고 방범용 폐쇄회로TV(CCTV)가 곳곳에 설치됐다. 또한 빈집을 수리한 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디딤돌 하우스’ 사업도 시행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도서관, 동네 사랑방이 있는 디딤돌복지센터도 들어섰다.

[표 4-5] 부산 덕포 1동

부산 덕포 1동 희망디딤돌마을		
이미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전체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주제를 가지고 벽면을 꾸미게 해 외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동네를 구석구석 둘러보게 하여 친근감을 줌 -비상벨 표지판은 눈에 잘 띄면서 주변과 조화로우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 -범죄 취약지역 근거리 방범초소를 설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실제 범죄감소 효과를 가짐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주민 쉼터로 바꾸었으나 이용하지 않음, 또한 공동화단은 방지되어 쓰레기가 쌓임유지 관리 되지 않는 시설물들은 오히려 마을을 범죄취약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단초가 됨 -마을 표지판과 위치번호표지판의 디자인이 마을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전략	물리적 영역	마을 표지판과 위치 번호 표지판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해 보임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유휴 공간을 주민쉼터로 바꿨으나 위치가 외져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음

라) 부산 부곡동 가마실 행복 마을

가마실은 부곡동에서 서동으로 넘어가는 산의 모양이 가마솥과 같이 생긴 데서 유래한다. 이 곳은 마을 구조가 복잡하고 다가구주택과 사회적 약자가 비교적 많은 범죄 취약 지역이다.


[표 4-6] 부산 부곡동 가마실 행복마을

부산 부곡동 가마실 행복마을		
이미지		
내용	치안올레길이라는 명칭 ; 노골적인 범죄예방 마을이라는 표시로 느껴짐	
전략	물리적 영역	-마을 게시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마을의 미관을 해침 -벽화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치안 올레길이라는 명칭이 아쉬웠음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전혀 보이지 않음

마) 부산 학장동 붉은디 마을

붉은디 마을은 붉은 흙이 많은 능선이 있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불려진 명칭이다.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마을 주민의 고령화와 폐공가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슬럼화가 가속됐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 스스로가 협의체를 결성하고 붉은디 마을'은 주민 스스로 마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관이 협동하여 안전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을 안전지도 제작과 함께 생활안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폐·공가를 활용 공동텃밭 운영, 마을 주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곳은 노후 옹벽을 보수 보강 정비하고 폐·공가를 활용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을 포장하고 좁은 골목길에 비상급수장치도 설치한다.

[표 4-7] 부산 학장동 붉은디 마을

부산 학장동		
이미지		
내용	-벽화 유형에 따라 지나칠 경우 거주자의 개성 상실, 재산권 침해	
전략	물리적 영역	공폐가에 낯선 사람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아져 있었음 단순히 막는 것보다는 마을에 유용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공동화단이 잘 가꾸어져 있었음

바) 서울 노량진 고시촌일대

노량진 1동 205번지는 여성 1인 가구가 서울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시촌 일대이다. 노상 흡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닥 도색과 표지판 안내 등을 이용해 별도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계단 탁자 등 휴게 시설을 마련했다. 또 이곳은 고시생 캐릭터와 ‘고시촌 합격 수칙’이나 ‘공부 중 췌!’, ‘흡연은 스트레스와 함께 기억력도 날려보냅니다’ 같은 문구를 활용하여 마을 경관을 꾸몄다. 힘내라는 격려 문구와 함께 계단에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탁자도 설치했다. 또 가림막에는 공부에 지친 고시생들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그려놓았다.

[표 4-8] 서울 노량진 고시촌일대

서울 노량진	
이미지	
내용	<p>노상 흡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닥 도색과 표지판 안내 등을 이용해 별도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계단 탁자 등 휴게 시설을 마련 힘내라는 격려 문구,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그려 넣음</p>
전략	<p>물리적 영역</p> <p>많은 표지판과 안내판 위주의 시설</p>
	<p>심리적·커뮤니티 영역</p> <p>힘내라는 격려 문구,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그려 넣음</p>

사) 서울 대림 2동 소통길

대림 2동은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으로 영화에서 중국동포로 인한 우범 지역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 곳은 중국인 범죄로 치안이 악화되면서 한국인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곳은 다문화 공동체 구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교포와 함께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마을 산책로인 소통길을 조성하면서 벽화사색길을 만들고, 운동정보게시판 등의 조형물도 설치했다.

[표 4-9] 서울 대림 2동 소통길

서울 대림 2동 소통길		
이미지		
내용	벽화사색길, 운동정보게시판	
전략	물리적 영역	벽화사색길, 운동정보게시판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중국교포와 함께 주민협의회 구성, 다문화 공동체 조성

아) 서울 삼양동 791번지일대

삼양동 791번지 일대는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살지 않아 낙후된 공·폐가가 존재하였다. 그러한 곳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여 안전한 퇴근길을 조성하고, 쓰레기더미로 가득한 주변 공원에는 클래식음악이 흐르게 하였다. 또한 폐쇄회로(CCTV)·보안등 설치, 벽화조성 등 CPTED 사업을 실시하였다.

[표 4-10] 서울 삼양동

서울 삼양동		
이미지		
내용	폐쇄회로(CCTV)·보안등 설치, 벽화조성, 음악 송출기, 공·폐가 정비	
전략	물리적 영역	폐쇄회로(CCTV)·보안등 설치, 벽화조성, 음악 송출기, 공·폐가 정비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가꾸는 공동 텃밭, 공동 공간

자) 서울 신대방동 다누리안심마을

신대방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 교포의 유입이 많은 곳으로 내국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곤 해 중국어 병기 표지판을 마을 여기저기에 설치하였다.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고휘도 도료를 사용해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 거울길을 표시하였고 어두운 골목에 LED 조명으로 조도를 높이고, 막다른 골목길에 반사경을 설치하였다. 특히 이곳은 지역 범죄 현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커밍 아웃 전략’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골목 담벼락을 밝은색으로 칠하고 친근한 서체로 ‘문단속을 생활화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적었다. 또 골목에는 반사경과 고화질 CCTV도 설치하고 주민이 모이는 작은 쉼터를 조성하였다.

[표 4-11] 서울 신대방동

서울 신대방동 다누리안심마을		
이미지		
내용	-서울 속 작은 서울로 불릴 정도로 중국 교포 유입이 많음 -중국어 병기 표지판, 엘이디(LED) 조명, 반사경	
전략	물리적 영역	중국어 병기 표지판, 엘이디(LED) 조명, 반사경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커밍 아웃 전략, 주민쉼터 설치

차) 서울 쌍문 1동

서울 쌍문 1동은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오래된 담장과 동네 골목길, 계단 등이 노후화되어 범죄에 취약한 동네이다. 안전존 입구의 수창빌라는 높은 담장을 헐어내고 개방형 담장을 만들었고 마을안전지도와 안전한 마을을 위한 정보가 적힌 알루미늄 주민알림판도 세웠다. 안심 골목길 곳곳엔 벽화를 그려서 꾸몄으며, 경고 문구와 범죄예방 디자인 등이 마을 여기저기 골목길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쌍문1동은 차량 블랙박스가 CCTV입니다. 전면카메라로 범죄취약공간을 비춰주세요’ 라는 주민협의체의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차량 블랙박스를 CCTV로 이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표 4-12] 서울 쌍문 1동

서울 쌍문 1동		
이미지		
내용	개방형 담장, 주민알림판, 블랙박스 CCTV	
전략	물리적 영역	블랙박스 CCTV, 개방형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음

카) 서울 염리동 소금길

서울 염리동은 과거 소금 창고가 많았던 동네이다. 재개발을 앞두고 노후화 되어가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공포지도를 완성하고 핫스팟의 사각지대를 연결해 총 1.7km구간을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소금길을 조성하였다. 소금길 산책로를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 곳곳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마을을 환하게 바꾸었다. 또 가로등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전봇대에는 비상벨을 달아 두고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란색 대문인 ‘소금 지킴이집’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표 4-13] 서울 염리동 소금길

서울 염리동 소금길	
이미지	
내용	<p>곳곳에 섬세하게 꾸민 마을 벽화들과 소금길이 인상적임 그러나 재개발로 주민 이주가 진행되고 있어서 철거되는 지역이 많아 안타까움</p>
전략	<p>물리적 영역</p> <p>소금길 산책로, 주제가 있는 벽화길</p>
	<p>심리적·커뮤니티 영역</p> <p>소금 지킴이집, 솔트 카페 염리동 마을 공동체 '소금나루'- 소금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 형상화한 곳으로 이전에 가압장 시설이었던 곳이 폐건물로 방치되자 리모델링하여 재탄생</p>

타) 서울 정릉동 정든마을

정릉 3동 372번지 일대의 정든마을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보존·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주거환경은 향상 시키면서도 마을의 고유한 특징은 보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일대는 근대 주거 양식인 흙벽돌집과 도시 한옥, 현대식 주택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쌈지공원 정비·운동시설 설치, 도로 포장 개선 정비, 버스 쉼터 조성, 골목길 포장개선, 노후계단 정비, CCTV와 보안등 확충, 마을 중앙길 테마가로 조성, 마을 입간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4] 서울 정릉동 정든마을

서울 정릉동 정든마을		
이미지		
내용	골목길과 도로 포장 개선에 치중되어 있음	
전략	물리적 영역	개성있는 골목길 바닥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근대 주거 양식에 어울리는 정감있는 벽화와 타일장식

파) 서울 회기동 안녕마을

회기동 주택가 및 원룸촌 일대에 시행된 CPTED 사업 내용은, 먼저 도색 및 벽화로 마을 미관을 가꾸었으며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보안등인 안녕마을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담장에 철조망 대신 디자인 철판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유지 관리가 소홀한 벽내 알림판과 방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센터, 공동화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표 4-15] 서울 회기동 안녕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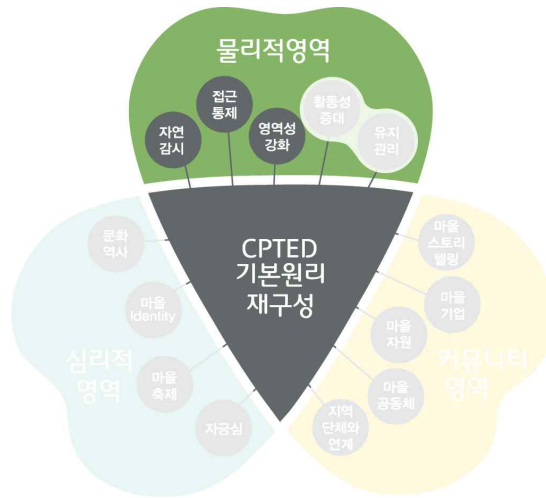
서울 회기동 안녕마을		
이미지		
내용	보안등인 안녕마을등을 설치, 마을 커뮤니티센터와 공동화단 설치	
전략	물리적 영역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소홀
	심리적 커뮤니티 영역	커뮤니티 센터, 공동화단 방치

하) 서울 행운동 행운길

행운동은 좁은 골목과 건물 사이 후미진 곳이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다. 또한 서울에서 여성 거주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행운길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LED 방범등과 반사경,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건물에는 눈에 잘 보이는 반사띠를 붙였다. 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일숍, 미용실, 카페 등을 연결해 ‘안심 담벼락 스토어’를 지정하고,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정해 긴급 상황시 대비하였다.

[표 4-16] 서울 행운동 행운길

서울 행운동 행운길		
이미지		
내용	LED방범등과 반사경, 비상벨 등을 설치 건물에는 눈에 잘 보이는 반사띠 부착 안심 담벼락 스토어,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전략	물리적 영역	led조명이 벽면을 장식하면서 범죄 취약 시간대에는 조명 으로 기능
	심리적·커뮤니티 영역	위트있는 바닥 그림과 안심담벼락 스토어가 인상적임



[그림 4-1] CPTED사례 기본원리 재구성에 적용

앞에서 분석한 CPTED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재구성한 기본원리 영역중에서도 물리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기본원리 3가지인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리적 영역이나 커뮤니티 영역의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연감시 전략, 접근통제 전략, 영역성 강화 전략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물리적 영역의 요소들은 특히 다른 영역의 요소들과 결합할 때 그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 곳들은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의 요소들인 문화·역사의 보존과 재생, 마을 Identity, 마을 축제, 자긍심,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 마을 공동체, 지역단체와의 연계부분들을 강화해 그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성공 사례 분석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는 1990년대 초반에는 인구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표 산업도 관광지도 빈약했던 산촌 마을이었으나 슬로우 시티를 표방하면서 농업과 관광이 잘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났다. 오르비에토 또한 슬로우시티 중심지로서 지역사회의 고유 문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동체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인 그레베 인 키안티는 CPTED 전략이 적용된 마을이 아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의 이용과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자연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CPTED사업을 시행한 마을 중 꾸준한 성공을 거둔 사례는 극히 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CPTED 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음 사례들에서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표 4-17] 슬로우시티 마을

마을 유형	마을명	기본원리 재구성	내용
슬로우 시티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물리적 영역	-슬로우시티의 발상지이면서 자연친화적 관광 도시 -대형쇼핑몰 패스트 푸드 입점 금지 -일정구역에서의 주차, 차량 진입 금지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 매매금지 -마을자원과 생태환경-관광산업 -언덕과 아름다운 편백나무 숲, 포도원, 성당, 성채, 농장, 흰색의 작은 타운
		심리적 영역	-이 지역의 고유성, 진정성, 다양성 강조로 마을의 정체성과 Identity 구현 -전통방식의 농축산물 재배, 사육 정책 -8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팔로니 마을 푸줏간에서 2년 숙성시킨 햄 -2000년 역사를 지닌 와인'키안티 클라시코'
		커뮤니티 영역	-철저하게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 운동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 성장 -주민이 지역경제 및 사업의 주체 -소득창출 -고용율 100%,소득수준이 높고 범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물리적 영역	버스와 자전거가 주요 운송 수단 -900년 역사 옛 시가지 자동차 통행 전면 금지,케이블카 타야 진입가능 한해 200여 만명의 관광객 유치 즉석 식품 없는 슬로우푸드 발상지 리사이클링
		심리적 영역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전통사업이 부흥
		커뮤니티 영역	지역안에서 생산된 음식자재, 수공예품 등을 각각의 분야별 주민 조직인 로컬서포터

이 마을들의 특징은 마을 공동체의 확립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마을 고유 특성을 살려 가꾸어 나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자연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곳에서 특히 중점을 둔 곳은 심리적 영역과 커뮤니티 영역의 마을 Identity, 마을 공동체, 마을 문화, 마을 자원 등의 요소들이었으며 물리적 영역의 전략들은 이 실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4-18] Identity 디자인 마을

마을 유형	마을명	기본원리 재구성	내용
Identity 디자인	영국 웨일즈 릴	물리적 영역	웨일즈 지방의 고유 컬러인 붉은 색을 메인으로 하고 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하늘, 바다, 모래 등 해변의 다채로운 컬러로 마을 전체에 시각적 활기를 불어 넣음
		심리적 영역	-영국의 디자인 팀 Proud Creative이 통일된 Identity를 부여하여 마을 전체를 브랜드화 -새로운 마을의 Identity 디자인은 새로운 건물, 구조물 등을 만드는 것 대신, 모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것들 위에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제안
		커뮤니티영역	마을 전체에 조화로운 이미지로 공동체 의식 향상



[그림 4-3] 영국 웨일즈 릴

릴(Rhyl)은 영국 웨일즈 지역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다. 이 곳은 최근 브랜드 Identity (Brand Identity)를 사용해 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다. 마을 이름인 'Rhyll'을 브랜드로 하고 통일된 Identity를 부여하여 마을 전체를 브랜드화 시켜서 작은 바닷가 마을을 젊고 활기가 넘치는 휴양도시로 바꾸었다. 웨일즈 지방의 고유의 컬러인 붉은 색을 메인으로 하고, 서브 컬러들은 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하늘, 바다, 모래 등 해변의 색채들로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마을 사업의 유형에 따라 슬로우시티, 스토리텔링, 지역문화마케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으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살기 좋은 마을을 추구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유형에 따라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이라는 목표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 주민요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매력을 가꿔 나가야 한다.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전략들을 현실화하여 범죄의 예방 효과와 커뮤니티 공동체 유지를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⁴²⁾ 다시 말해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Identity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4-4] 부산 감천문화마을

예를 들어 부산 감천 문화마을은 원래는 피난민의 터전으로 낙후된 마을이었으나 지역 예술인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감천만의 특색 있는 마을로 재탄생시켰다. 마을의 독특한 계단식 주거 형태가 201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특별한 경관을 자아낸다.

42) 김부치, 2016, CPTED기반 벽화 마을의 효용성에 관한 인과지도 구축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p45-57

[표 4-19] 마을 유형별 사례 연구

마을 유형	마을명	내용
슬로우 시티	신안 증도	재래식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완도군 청산도	다랑논과 구들장논, 해녀 등의 전통문화
	담양 창평면	전통돌담과 한과, 쌀엿 등의 전통음식
	전주 한옥마을	한옥 마을과 전통문화 체험
스토리 텔링	대전 대화동	-마을 브랜드,이벤트 개발로 등대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을 감성적으로 설명해 낭만이 가득하고 안전과 희망이 있는 대화동으로 스토리텔링화 -대화동의 안전과 회귀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등대를 콘셉트로 활용해 심볼과 로고, 엠블렘, 스토리 제작 -옷과 머그컵, 휴대전화 바탕화면, 컵홀더 등 대화동 내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전략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디자인을 적용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의미의 엽서 제작과 우편함 설치 -마을소득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대베이커리 운영제한 -등대과자와 등대달고나 등 상품개발로 지역 명물창출 도모
지역 문화 마케팅 브랜드	부산 감천 문화 마을	-차별화 된 브랜드 구축 ;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만든 마을로 특유의 구획 형상이 감천 마을만의 특별한 경관을 만들어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 레고 마을, 한국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 -공동이용시설,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 담장 가꾸기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수익구조로 게스트 하우스, 황토 소금, 천연염색, 비누, 도자기 공방 등의 사업 -유출 인구 1/3 수준으로 감소, 빈집 감소 -201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 수상
공공 미술 프로젝트	통영 동피랑마을	동피랑은 이순신 장군이 설치한 통제영의 동포루가 있던 자리로 원래 통영시에서 마을을 철거하고 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이름난 화가 뿐 아니라 미대생과 일반인도 뜻을 같이해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벽화로 명소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보존하게 됨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색이 뚜렷하고 마을 자원을 잘 이용하고 주민참여가 활발할수록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 부산 안창 호랭이마을

[표 4-20] 부산 안창 호랭이 마을 사례 연구

마을명	기본원리 재구성	내용
안창 호랭이 마을	물리적 영역	▷호랭이 마을에 적합한 벽면 정비, 담장, 도색, 벽화 등 마을의 통일성 유지 -범내골에 대한 지명의 유래와 더불어 지역의 옛 사진들과 호랭이 이야기들을 벽을 따라 전시 -다양한 표정을 가진 호랭이 화단에 도시 농업 ▷산복도로 사업 (방치된 폐공간, 유후공간, 막다른 골목, 좁은 골목, 담장, 건물사이 측면 공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 ; 고지대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새로운 관광 자원 -부산다움을 상징하는 보존 지역
	심리적 영역	▷마을의 역사와 Identity 측면에 입각한 브랜딩 -부산표준어인 호랭이 마을로 브랜딩 마을 입구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호랭이 조형물 이전에 호랭이가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라 지명에 범호(虎)자가 많이 등장
	커뮤니티 영역	▷행복마을 사업 오색빛깔 염색공방 ▷호랭이마을 잔치 -호랭이 마을의 안내소 역할을 하는 오색빛깔 행복공방에는 마을의 주민들이 늘 상주 ; 이와 관련하여 4월엔 오색빛깔 잔치 개최 -호랭이 마을 잔치 ; 호랭이 마을은 한동네 같은 이웃인데도 행정 구역이 동구와 부산진구로 나뉘어 갈등의 소지가 있었음 마을잔치로 인한 화합의 기회 -마을 주민협의회가 동네의 마을 살림을 맡아 운영함 -호랭이 마을을 상징하는 호랭이 무늬 패턴으로 디자인된 마을회관 1층이 마을지기 사무소로 사용됨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주택수리에 필요한 공구 대여 ▷지역단체와의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호랭이 마을의 서포터즈 마을을 후원하는 여러단체들이 MOU를 맺고 사회 봉사를 통해 그 이름을 딴 길을 만들고 마을사람들 사진과 호랭이와 관련된 속담이나 이야기를 남김



[그림 4-5] 부산 안창 호랑이 마을

부산 안창마을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분지 안쪽 끝이라는 의미로 안창마을로 지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호랑이가 실제 살았다고 해서 호랑이 마을로도 불렸다. 본래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이었다고 한다. 부산의 다른 달동네들과 마찬가지로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기 시작했고 마을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현재는 800가구 1,500여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며 그 중 대다수가 무허가 주택이라고 한다. 안창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고 조그마한 절이 많다.

최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행복마을 사업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마을의 수익도 높아졌다.

나)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표 4-21] 부산 아미동 비석 마을 사례 연구

마을명	기본원리 재구성	내용
아미동 비석 마을	물리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딩한 비석마을에 적합한 벽면 정비, 담장, 도색, 벽화 등으로 마을의 통일성 유지 ▷산복도로 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미 구역' 사업으로 시행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탐방로' 조성 -최민식 갤러리가 있는 아미 문화학습관 -각종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차집 예술체험장 -대성사; 아미산에 일본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절 설립 -마을 중간지점인 노상 주거지 주차장 옆 '전망데크' 설치
	심리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의역사와 Identity 측면에 입각한 브랜딩 ▷마을 역사 -마을지도와 비석마을의 캐릭터인 '석이' 로고와 함께 비석문화마을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 등을 기술 -비석문화마을은 일부 하층계급의 조선인들이 구한말까지 거주하던 곳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민단이 들어오면서 부산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본인 묘지를 옮겨 집단묘지촌이 형성되고, 화장장이 만 들어짐 -해방 이후 6.25 피난민 등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판잣집 지음 -판잣집을 지을 때 묘비를 담, 주춧돌 등 건축자재로 사용해 그 일대가 비석문화마을로 불림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 -부산무형문화재인 아미농악이 전래 -일제시대 유물과 문화 자원존재
	커뮤니티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체험장 (폐공가 사용) ▷마을기업 ▷사랑방 -기차길 카페 ; 액세서리,비누,쿠키 만들기 등의 체험장 아미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인 '아미맘스'에서 비롯한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 겸 예술체험장 -주민센터의 사랑방 조성 ; 공가 활용 -아미농악 전수교실, 숲 생태야카데미 등 운영 ▷지역 단체와의 연계 ;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미지의 벽화 조성 -마을의 관광자원 이용



[그림 4-6]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부산항 개항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일본인들의 묘지촌일대였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판잣집을 지으면서 묘지의 묘비 등을 판자집의 축대, 주춧돌 등으로 사용해 비석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탐방로와 전망대, 유명 사진작가 갤러리, 예술체험장 등을 조성하였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감천동 문화마을과 붙어있는 지역으로 분위기가 비슷하면서도 같지 않다. 광복으로 서둘러 돌아간 일본인들이 미처 수습해 가지 못한 묘지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묘지든 무엇이든 우선은 살고 봐야 하였던 피난민들은 묘지 위에다 천막을 치고는 집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그 많은 공동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들이 들어서 있다. 지금도 무덤의 상석과 비석을 빼서 바닥과 축대로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러한 많은 사례 중에서도 특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부산시 감천 문화 마을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감천문화마을은 저소득층 주거지로 낙후된 마을이었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 브랜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잘 사는 마을을 가꾼 사례이다. 감천 문화마을은 전국의 태극도 신도들이 한국전쟁 중 피난 생활을 하던 중 1955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집단이주를 통해 산 비탈면에 판자집 1천여 가구를 지어 형성된 곳이다.

처음에 건립된 판자집들은 19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판넬, 슬라브 형태로 개량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마을 특유의 골목길과 감감으로 불리던 구획들은 상당부분 초기의 형태로 남아있다. 그리하여 근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⁴³⁾ 감천동을 문화마을로 만들면서 생활의 질도 개선되고, 마을 커뮤니티도 생겼으며, 범죄율도 크게 낮아졌다.



[그림 4-7]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43) 감천문화마을 작은 박물관 브로셔 발췌



[그림 4-8] 감천문화마을 작품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공공미술 프로젝트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산토리니 라는 명성에 걸맞게 동마을의 고유한 Identity를 간직한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구현해 내고 있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은 레고마을로도 불린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았을 때 색색의 주택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 마을을 표현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표현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 또한 이 마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4-22] 감천문화마을 잘사는 마을 가꾸기 내용 I

유형	명칭	내용
마을 브랜드	한국의 마추픽추 지성이면, 甘川 한국의 산토리니, 감천	산자락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미로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만의 독특한 경관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유지하여 현재 연간 200만여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됨
마을 슬로건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방문객에 친절한 마을 주민 스스로 자식하는 마을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로 일궈낸 문화 브랜드로서 보존과 재생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생활 문화에 창조적인 예술의 옷을 입혀 생활 친화적인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마을 관광 상품	감천 황토가마 소금	감천문화마을에서 황토소금 전문가와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생산, 전남 신안의 천일염을 황토볼을 이용하여 구워냄, 1년만에 매출 11억 돌파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	감천문화마을 스토리텔링책자-아름다운 감천문화마을의 풍경과 더 아름다운 주민들의 이야기
	감천문화마을 사진첩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의 사진을 담음
	감천풍경	문에 걸어 두거나 창문에 달아두었을 때 바람이 불면 깨끗한 종소리가 울리는 금속공예품 풍경
	부산과 감천마을 입체카드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은상 수상
마을 축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p>기획부터 행사의 운영까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진행, 2017년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p> <p>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는 계단식 구조, 미로 같은 골목, 알록달록한 지붕 색깔을 가진 곳으로 감천문화마을의 지리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축제의 프로그램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길 곳곳을 방문하는 미로미로 골목길 투어 -우리나라 근대사회 및 산복도로의 삶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60여점의 예술작품 설명 -현지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는 감천골목의 숨겨진 이야기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신나는 타악기연주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골목 나라 퍼레이드 -주민 배우들이 그들의 이야기로 만든 마을연극 -감천문화마을을 조성 전, 후 모습을 담은 『감천문화마을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시회 -골목과 옥상에 소규모 공연을 위한 옥상 프린지 -옛 추억을 되새길수 있는 먹거리 체험과 골목길 놀이 등



[그림 4-9] 감천문화마을 브랜딩, Identity



[그림 4-10] 감천문화마을 관광 상품
마을 주민들의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

이 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익금은 대부분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역 환원 사업에 쓰이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의 황토 가마 소금은 2015년 행정자치부 마을 공방 육성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출시 1년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하는 등 형식적인 수익사업이 아닌 감천문화마을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표 4-23] 감천문화마을 잘사는 마을 가꾸기 내용 II

유형	명칭	내용
마을 커뮤니티 공간	감내어울터	옛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커뮤니티센터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카페와 갤러리, 방문 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옥상 전망대
	마을지기사무소	마을지기과 만물수리공이 상주하여 주민들의 소규모 집수 리 공구대여 무인택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복지 공간
	감내골 행복발전소	주민들과 어우러져 공동작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행복을 만 드는 공간



[그림 4-11]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 공간

감천문화마을은 감내어울터, 마을지기 사무소, 감내골 행복 발전소 등의 마을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주민 복지 사업을 하기도 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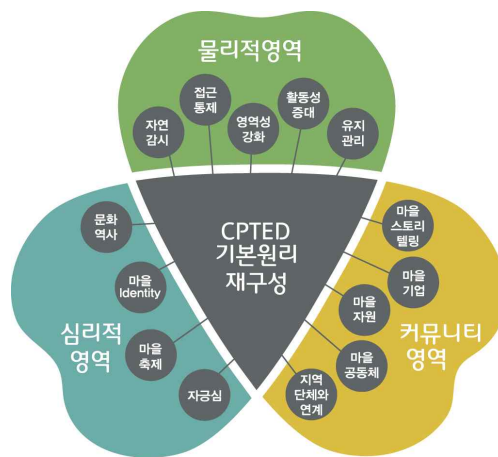
[표 4-24] 감천문화마을 잘사는 마을 가꾸기 내용 III

유형	명칭	내용
마을 시설	감천 문화마을 안내센터	방문객을 위한 관광정보 및 편의 공간 제공 골목투어지도 판매, 물품 보관소, 마을해설사
	하늘 마루	용두산을 포함한 부산항과 감천항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 감천문화마을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는 전시 안내관이자 전망대 마을 주민이 거주하던 집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설계
	방기방가 게스트하우스	감천의 비어있는 폐공가를 60-70 년대를 주제로 리모델링 내부는 옛 모습과 현대식 편의시설의 조화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옛 정취와 향수를 느끼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숙박 공간 수익금은 어르신 이불 빨래 등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
	작은 박물관	주민들이 모은 감천의 옛 사진 생활용품들이 테마 별로 전시 옛 생활의 추억과 근대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의 감천문화마을 조성과정 살펴 볼 수 있음
	아트숍	감천문화마을 입주작가와 주민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처
	미나숍	감천문화마을의 관광상품 구입처 어린이자손수건 에코백 파즐 포장지 파우치 책갈피 문구류 등
	감내7째	감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며 하늘 마루로 올라가는 골목길 입구에 위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짐 수익금은 주민 복지 사업에 쓰임
	감내맛집	감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기업 분식 비빔밥 어육 판매 수익금은 주민 복지 사업등 지역 환원사업에 쓰임
	감천아지매밥집	엄마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기업 수익금은 주민 복지 사업등 지역 환원사업에 쓰임
	입주작가 공방	감천문화마을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술 작가들이 꾸민 총 9개의 공방으로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면 만날 수 있음



[그림 4-12]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감천문화마을이 다른 마을과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마을 재생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과 마을의 고유한 Identity를 바탕으로 마을 브랜딩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림 4-13] 감천문화마을 기본원리 재구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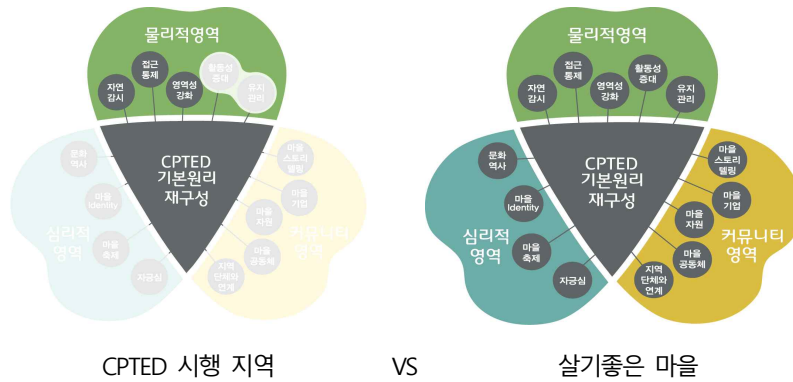
3. 사례 비교

감천문화마을은 CPTED 사업이 진행되었던 다른 마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차이가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서울시 회기동 안녕마을은 본래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한 동네로 2014년 서울시의 ‘통합형 안전마을 조성사업’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 곳곳에 CPTED를 적용했다.

[표 4-25] 감천문화마을과 CPTED 적용 마을 회기동 안녕 마을의 비교

	감천문화마을	CPTED 적용 회기동 안녕 마을
마을 브랜드		
공공 미술		
커뮤니티 시설		
벽화		

이곳은 야간에 보안등 역할을 하는 안녕상자 설치, 양심거울 설치, 반사경, 마을의 스토리를 담은 소원을 들어주는 우물가 정비, 벽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 공동화단 설치 등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범죄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 마을은 초기에는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으로 마을이 잘 정비 되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3여년이 지난 올해 5월에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는 기존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벽화 또한 보수 소홀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14] CPTED 재구성에 따른 사례 비교

이 두 사례에서 마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고유한 마을 브랜딩이 마을 사업의 효과성에 가장 중대한 요소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회기동 안녕 마을은 주민의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고, 마을 브랜드인 안녕과 회기동의 고유한 특색을 발견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이에 비하여 감천 문화 마을지역 주민들은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간의 합의와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고, 이에 따라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 환경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 같은 활동으로 감천 문화마을은 물리적 영역의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 관리 원리가 마을의 다른 요소들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마을 전체의 질을 높이고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았다.

제 5 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결과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제 5 장 결 론

제 1절 / 연구의 결과

최근 몇 년간 사회 불신과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하 CPTED)를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연구,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CPTED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CPTED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장조사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하였다. 살기 좋은 마을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뚜렷하게 살리고 마을 자원을 잘 이용하고 주민참여가 활발할수록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 연구의 과정은, CPTED의 개념과 기본원리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CPTED의 보완될 부분으로서 살기좋은 마을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CPTED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셉테드의 기본원리의 구성요소가 감시, 통제, 제한 등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략의 비중이 높고,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경 중심 관점에 치우쳐있다. 시설의 관리 및 인적 물적 자원등의 한계, 그리고 형식적인 시민참여나 민간자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한계점으로 도출 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로 시설물 설치, 벽화로

의 집중, 주민참여 부재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CPTED 기본원리를 재구성하여 기존 물리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자연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관리에서 보다 확대된 물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적인 영역 이렇게 3 영역으로 나누었다.

각 영역은 첫째 물리적 영역은 기존 CPTED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물리적 환경 개선 부분을 말한다.

둘째 심리적 영역은 마을 문화·역사의 보존과 재생, 마을Identity, 마을 축제, 마을에 대한 자긍심등을 포함한다.

셋째 커뮤니티 영역은 마을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 마을 공동체, 지역단체와의 연계 등의 전략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CPTED 기본원리 재구성한 결과에 비추어 살기 좋은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특히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감천동을 문화마을로 만들면서 주민의 생활의 질도 개선되고, 마을 커뮤니티도 생겼으며, 범죄율도 크게 낮아졌다.

감천문화마을이 다른 마을과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마을 재생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과 마을의 고유한 Identity를 바탕으로 마을 브랜딩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CPTED 사업이 진행되었던 다른 마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차이가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이 사례에서 마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고유한 마을 브랜딩이 마을 사업의 효과성에 가장 중대한 요소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CPTED와 살기좋은 마을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고찰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커뮤니티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살기좋은 마을의 인간중심적인 부분이 보완되어, CPTED의 기본원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제 2절 /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이 연구에서는 CPTED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 지속 가능한 전략과 CPTE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PTED의 개념과 기본원리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았다. 선행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CPTED에 대한 여러 전략들에 앞서 마을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CPTED의 기본 원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을 추가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의 확장을 생각해 보고, 범죄예방의 일차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확장적인 목표를 위해 CPTED의 기본구성 원리를 재구성해보았다. 통신이 발달할수록 모방범죄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전체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본인연구자가 제시한 CPTED 기본원리 재구성과 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CPTED의 기본영역에 관한 연구로서 살기 좋은 마을의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CPTED 개념을 위해 연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CPTED 기본원리 재구성에 따른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CPTED 재구성을 위한 원리로서 물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에의 구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이러한 부분은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CPTED의 이 세 영역에 기본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도서

- 박현호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2014
- 이경훈·강석진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문당 2015
-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 Timothy D.Crow CPTED범죄예방설계 기문당 2016

학술논문

- 강승영·안수미·손광호, 2014,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안, 디자인학회 논문집, 23(6)
- 김부치, 2016, CPTED기반 벽화 마을의 효용성에 관한 인과지도 구축연구, 한국 과학예술포럼
- 김우영, 2013, 은평구 마을공동체로 바라보는 주민참여사업, 공공사회연구 3(2)
- 김은아, 2007, 복지과 도시브랜딩-행복마을(전라남도) 분석을 중심으로, 2007, 디자인지식저널
-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도시행정 학보, 13(11)
- 김현정, 2015, 마을 브랜드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농어촌 마을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Newman,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i
- 노동주·임창주, 2002,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법학논총, 22(2), 1972, 재인용
- 류인평·조영호·심우석, 2014, 관광스토리텔링과 관광목적지 매력, 브랜드 가치 연구-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2)
- 박문규, 2013,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대전 대동마을과 프랑스 리옹 벽화 마을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 박진희·황용섭·박성룡, 2014, 주거환경 취약지구에서의 제 3세대 범죄예방환경설 계전략, 한국기초조형학회, 15(5)
- 박현·김영제, 2008,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범죄환경설계의 전략과 향후 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7
- 성영아·변민주, 2013, 벽화마을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 한국과학예술포럼, 14
- 신중진·김일영·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7~2009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48(6)
 - 신중진·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수원화 성과 행궁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4)
 - 신재현·김상운, 2012,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 아파편 단담마논·조정형, 2016, 골목마을을 위한 CPTED 범죄예방 유도표시 디자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Sesearch, 15(1)
 - 음영철, 2014, 한국의 '벽화마을'과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시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2)
 - 이경화·신윤재·엄아영·박재은·이전미·최성호, 2014,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지하철 역사 공간의 범죄유발요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 이도선, 201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1(4)
 - 이은지·최현선, 2015,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 이형복·임운택·최봉문·김낙수, 2012, 학교시설에서 CPTED 적용방안 및 원칙에 따른 시뮬레이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 이호상, 2013,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방법론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14
 - 임경수, 2008, 마을 만들기 운동과 사회적 기업, 복지 동향
 - 정운남·이건원·김세용, 2009, 도시재생에 적용된 범죄예방기법에 관한 연구-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3)
 - 정재희, 2012,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
 - 조홍식·민원홍·김현민, 2010,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2)
 - 최승호, 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충남 홍성군 흥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 19(1)
 - 최지영·김현지, 2017, 감천문화마을의 지역 문화마케팅이 지역브랜드 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2(1)
 - 홍슬기·조인숙·신화경, 2015,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정책자료 및 보고서

- 강은영·박미랑·김상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의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사례연구, KiC현사정책연구소식, 2013
- 정재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CPTED의 의의와 경남의 정책방향, 2007, 경남정책Brief
- Timothy D.Crow &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2000, 재인용

웹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네이버 사전 <http://www.dic.naver.com>
- 네이버 지식 백과 <http://www.terms.naver.com>
- 법무부 <http://www.moj.go.kr>
- 부산 감천문화마을 <http://www.gamcheon.or.kr>
- 브라질 파벨라 <http://www.favelapainting.com>
-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 <http://www.comune.greve-in-chianti.fi.it>
-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http://www.jjan.kr>
- 영국 웨일즈 릴 <http://slowalk.tistory.co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국문초록 -

CPTED 기본원리 영역 재구성에 관한 연구
-살기좋은 마을 관점에서 본 CPTED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nstructing Basic Principles of CPTED
-Focused on the CP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better village-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즉 CPTED를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CPTED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서, 지역과 장소를 고려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서 적용하기 보다는, 일부 성공한 지역의 단편적인 시설물이나 정책을 모방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CPTED에서 사회적 참여와 민주적 관리를 중시하는 접근 방법인 인간 중심적 접근의 관점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성원간의 합의와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CPTED기본 원리 영역의 재구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주민 공동체 의식과 마을 Identity를 충분히 고려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좋은 마을에 대한 개념과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Identity, 커뮤니티 등의 요소들이 기반이 되고 있으며 느낌의 삶, 활동, 소통의 공간, 사회·문화적 요소 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

살기좋은 마을의 사례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결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커뮤니티, Identity, 마을브랜드, 마을자원, 마을의 문화 생태

환경을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Identity의 구현과 마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하여 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 커뮤니티와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CPTED의 기본원리를 확장하는데 포함시켰다.

CPTED의 기본원리를 물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으로 재구성 하였다. 이 세 영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어느 한 전략이 한 가지 영역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커뮤니티적 영역에서의 마을 Identity를 통한 마을 브랜딩과 마을공동체의식을 기반의 커뮤니티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CPTED와 살기좋은 마을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고찰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하였다. CPTED의 기본원리 5가지를 물리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살기 좋은 마을의 요소들을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 새로 도입된 두 영역은 마을의 정체성 확보, 문화역사 보존과 재생, 마을 축제, 자긍심 구축과 또한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 마을 공동체, 지역단체와의 연계 마을 수익의 창출도 포함한다.

CPTED의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이라는 한계점을 살기좋은 마을 관점을 적용하여 CPTED의 기본원리를 재구성한 연구로 추후 CPTED를 적용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 CPTED, 범죄예방, 범죄예방디자인, 마을 만들기